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왕의 왕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늘 주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3년 9월 30일 (토) 제 1939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

단순한 신이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하나님, 천사, 악마 같은 영적 존재의 실재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에서 하나님, 악마 및 기타 영적 실재에 대한 믿음이 최저점에 도달했다. 최근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 천사, 천국, 지옥 및 악마의 존재를 믿는 미국인의 비율이 2016년 이후 3-5퍼센트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미국인 대다수는 여전히 영적 존재를 믿고 있는데, 74퍼센트가 하나님을 믿고, 69퍼센트는 천사의 존재를 믿으며, 67퍼센트는 천국을 그리고 59퍼센트는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 악마의 존재를 믿는 수치는 58퍼센트였다.

2001년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감소한 게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인데 각각 16퍼센트포인트였다. 2001년 이후 지옥에 대한 믿음도 12퍼센트포인트 떨어졌고, 악마와 천사에 대한 믿음도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미국인의 51퍼센트는 다섯 가지 영적 존재를 모두 믿는다. 그 어떤 존재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11퍼센트이며,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7퍼센트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감소했지만, 18-34세 연령대가 그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가톨릭보다는 개신교인에서 믿는 비율이 더 높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 대다수가 다섯 가지 영적 존재를 다 믿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 성향도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화당원의 78-87퍼센트가 다섯 가지 영적 존재를 믿는데, 무소속의 경우에는 51-68퍼센트이다. 이에 비해서, 민주당원의 56-66퍼센트가 하나님과 천사, 천국은 믿는다고 했지만, 지옥과 악마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절반 미만이었다.

무슨 의미인가: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식론적 권위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특정 주제에 관한 인식론적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해당 주제에 관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통찰력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이다. 과거에 인식론적 권위는 현실에 대한 공유된 감각과 현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권위에 대한 존중에 크게 뿌리를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놓고 삼신할머니가 준 거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자기의 자궁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두 의견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머니의 말을 믿었다. 아기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현실을 어머니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지식의 많은 영역에서 인식론적 권위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형이상학적 주관주의에 빠르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형이상학은 실재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연구이고, 형이상학적 주관주의는 실재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입장이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실재 또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인식, 신념 또는 기타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건화된다는 것이다. 실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저 바깥"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형성되거나 심지어 존재하게끔 되는 무엇이라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먹구름 틈새에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리뷰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가 발간됐다. 이 조사는 1998년부터 한국인의 종교 실태와 신앙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5년 단위로 이번과 같은 체계를 갖추었다. 이 조사는 현재 한국 기독교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단연구의 성격을 지닌 가장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조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종교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비종교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종교 이탈률에서 개신교가 가장 높다.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 추세 또한 꾸준하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믿음과 윤리적 신념도 약화하고 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른바 '가나안성도'는 조사 때마다 올라서 이제 거의 30퍼센트에 다다른다. 2012년 조사에서 10.5퍼센트였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23.3퍼센트, 이번 2023년 조사에서는 29.3퍼센트까지 치솟았다.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3명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셈이다. 비종교인들의 종교별 호감도에서 개신교는 불교(32.9%)와 천주교(29.9%)는 물론이고 유교(11.3%)보다도 낮은 6.8퍼센트가 나왔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개신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가 이제는 종교로서의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유교나 토속 신앙이나 미신 취급받는 샤머니즘(3.9%) 사이에 위치했다는 결과는 쓰라리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가능성과 방향성의 좌표를 찍을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들이 있다. 이를 긍정적인 혹은 희망적인 결과라고 말하면 자기 위로의 정신 승리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9면으로 계속〉

3면
시 론
민경엽 목사

4면
푸른초장
정관호 목사

8면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SBS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필라델피아
새한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 취임예배

할렐루야 새한장로교회를 1989년 10월 15일부터 만 34년 시무해 오신 담임 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 취임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환이나 선물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KAPC 새한장로교회 교우 일동, 필라델피아 노회 위임국장

원로목사 추대: 고 택 원 목사
담임목사 위임: 이 은 우 목사

일 시: 2023년 10월 15일(주일) 오후 4시
장 소: 새한장로교회당
6 Summit Valley Lane Oreland, PA 19075
215-402-9922(교회) 215-668-3599 (cell.)

SEHAN 새한장로교회
sehanpa.org

발행인 칼럼

달도 차면 기우나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오랜만에 고국에서 맞는 추석이다.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기에 추석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었으나 한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임을 생생히 보고 있다. 추석은 달과 연관되어있다. 일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이다. 그러나 달은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우리에게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름도 각각이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리고 그믐달. 다른 모습, 다른 이름의 달을 보고 많은 시와 노래가 지어졌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반달"이라는 동요이다. 왠지 슬프게 불렀던 그 노래는 저 멀리 있는 달이 마치 눈앞의 강가에서 떠다니듯, 그리고 거기에 토끼 한 마리가 타고 있듯 한 상상을 자아낸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달은 꽉 차기도 하고 곧 기울기도 한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매일 일정하지 않다. 무엇인가 채워진 듯하다가 이내 사라지고, 다 사라진 듯하다가 점차 무엇인가로 채워지곤 한다. 인생이 언제나 밝은 보름달 같을 수는 없다. 꿈이 아니면 어찌 매일을 골든타임 같은 보름달로만 살 수 있겠는가. 달이 차면 곧 기우는 것이 이치이듯 우리의 삶도 그려러니 한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이려니 하지 말자. 차면 다음 날부터 기우는 보름달보다 더 환하게 매일을 살 수 있다. 이런 수상 소감을 남긴 여배우가 있다.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몇몇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렇게 소감을 이어갔다. "내 삶이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했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 질 무렵 우러 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4년 전 한국의 5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로 여우 주연상을 받은 김혜자씨의 수상소감이었다. 그 때도 많은 이의 눈물을 자아냈고 지금도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케 한다.

찼다가 기우는 달이 주는 교훈도 크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다. 깊이 아로새겨야 한다. 그러나 "보름달"의 교훈을 넘어 "눈이 부시게"의 삶도 있지 않은가. 고국에서의 추석 연휴인데 막상 갈 곳은 없다.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님, 모두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 많이들 그러시지만 이 땅에서는 아내도 나도 고아다. 그래서 추석에 부모님들이 앞서 가 계신 보름달 너머의 하늘을 다시 바라본다. 그러면서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은 찼다가 기우는 저 "보름달"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날마다 "눈이 부시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다시 생각한다.

전도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세속 시대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들 너무 바쁘다거나, 심각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어색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침묵하는 이유에 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뭔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의 하나는 애초에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데에는 세 가지 공통되는 이유가 있다.

1. 맥락을 무시한다.

지금은 탈 기독교 시대이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쉽게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오해를 사거나 완전히 거부당할 용어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거기에는 심지어 성경의 용어까지 포함되어 있다.

•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본질(또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쓴다면 의미 없는 말로 전락한다.

•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실이지만, 죄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죄에 대해 그다지 나쁘게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당신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말도 사실이지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 "성경에 따르면요…." 훌륭한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꺼내려면 조건이 있다. 성경이 구식, 가부장적 동화 모음집으로 치부되지 않는 경우이다.

복음을 멋있게 치장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변 문화를 연구하는 목적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관과 희망, 두려움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복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고 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상까지 전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과 같은 문화 환경 속에서 효과를 높이려면 질문에 능숙해야 한다. 전도하는 핵심 목표가 단지 당신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런데도 오로지 전문 성경 용어로만 나열하는 데 그친다면, 회의론자들은 기껏해야 혼란에 빠지거나 최악에는 도망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목표가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해하기 위해서 듣고 또 이해받기 위해서 말하게 된다. 더불어서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이 곧 듣게 될 최고의 소식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유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전도는 단지 허공을 때릴 뿐이다.

2. 사랑하는 데에 실패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살전 2:8).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영적 미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는 메시지도 들리지 않는다. 신뢰는 필수이며, 당신이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기본이다. 사랑에 실패하는 순간 복음 전파가 허사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완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결코 실질적 전략의 범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사랑이야말로 당신이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당신이 진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종이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단언한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고전 13:1-3)

당신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전도자일 수도 있다. 또 회심자도 적지 않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단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험과 이해관계는 없다.

제대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잘 들어주는 것이다. 경청은 단지 힘든 시기를 겪는 연인에게만 해당하는 조언이 아니다. 그건 감성 지능의 기초 중 기초이다. 경청과 사랑받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흡사해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미국인이...

〈1면에서 계속〉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형이상학적 주관주의는 너무도 터무니없어서 누구도 그것을 믿을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1992년 대법원 사건인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을 생각해보자. 그 판결에는 형이상학적 주관주의에 관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고 영향력 있는 주장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낙태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면서 케네디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자유의 중심에는 존재, 의미, 우주, 인간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개념을 정의할 권리가 있다"라고 썼다.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케네디도 형이상학적 주관주의가 자명하다고 가정한다. 전직 판사 케네디의 정의에 따르면, 존재의 본질(존재함), 윤리의 본질(의미), 물질세계의 본질(우주), 그리고 사고와 감정 및 행위(인간 생명의 신비) 등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개념은 하나같이 개인이 정의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실재의 본질을 스스로 정의할 권리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에 필요한 기본 권리가 된다.

물론 아무리 케네디라고 해도 형이상학적 주관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한 적이 없다. 아니,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개념은 터무니없고, 누구라고 거기에 따라서 살 수는 없다. 케네디의 견해는 합의가 필요한 실재에 대한 부정이자 누구나 스스로 실재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가능하려면, 현실 내지 실재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자기모순 없이는 누구도 일관되게 형이상학적 주관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념상 형이상학적 주관주의 내에서 자기모순은 누군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재"가 된다. 따라서 얼마든지 실재 그 자체를 거부함으로 누구라도 비일관성과 모순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있다. 자기모순을 무시하고 대신에 "자기 눈에만 보이는 진실"에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지극히 자기 모순적이고 실재의 재정의라는 형이상학적 주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트랜스젠더 운동이다. 얼핏 보기에 이건 거의 갑자기 세상에 튀어나온 것만 같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니다. 인식론적 권위를 거부하고 이를 내부 권위로 대체하는 데에는 무려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사람들이 "나의 진실"이라는 말에 더 이상 웃지 않게 되었을 때, 도리어 급진적인 내부 주관성을 지적 존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발생한 게 다름 아닌 트랜스젠더 운동이다.

그렇기에 이번 갤럽 여론조사는 놀랍지 않다. 하나님, 천사, 악마, 천국, 지옥이 정말로 실재한다면(당연히 그렇다), 그 사실은 진리가 개인의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생각에 실존적 위협을 가한다. 형이상학적인 주관주의가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하나님과 그 외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비례하여 감소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다.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주관주의가 성경의 인식론적 권위와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며, 그를 통해서 천사, 귀신, 천국, 지옥 등 모든 실재가 창조되었다(골 1:16-17).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이웃이 그들의 궁금함이나 채우는 수준의 일반적인 신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신 분을 받아들이도록 애써야 한다. 진정한 진리의 권위를 올바로 인식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주관적인 '나의 진실'이 얼마나 무가치한 우상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된다.

by Joe Carter, TGC

전도하지 않는 세가지 이유

〈2면에서 계속〉

성경이 무어라고 하는가?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약 1:19) 권고한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하는 데에 바빠서 상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위험까지 무릅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여전히 길을 잃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는 것처럼 상대에게 말해야 한다. 지금은 분노의 시대이다. 문화를 역행하는 사랑의 말투가 없다면 복음이라는 반문화적인 메시지도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3. 두려움에 굴복한다.

전도하기를 꺼리는 진짜 이유 중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어쩌면 그건 어색한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노골적인 거부나 당혹감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회의론자의 반대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두려운 이유는 수없이 많다.

두려움 중 일부는 소심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낭비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전도는 복잡하지 않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제대로 나누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상태가 되어서 전도하는 날은 아예 꿈꾸지도 말라. 그런 날은 없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혼을 붙잡고 관리하겠다고 결심하라.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고 싶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적으로는 괴로울 것이다. 뱃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다. 그건 정상이다. 맥박이 마구 뛸 수도 있다. 그것도 정상이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복음 전파자의 세계로 들어왔다. 환영한다. 기억해야 한다. 이런 불쾌한 감정이 결코 도망치라는 신호이거나 다음으로 미루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대로 지금 당장 두려움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할 바로 그 순간이다. "그래, 두려움아, 너는 실재하고 또 강력하지. 하지만 넌 전능하지 않아. 넌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나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로지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거야. 지금 나는 그분께 기대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어."

당신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지금 한번 상상해 보라. 당신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두려움에 얼어붙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주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게다가 게다가 환경도 이상적이지 않아서 당신이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위대하시며 동시에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의 하나를 선포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눅 12:32).

감을 잡았는가? 목자. 아버지. 왕. 하나의 작은 구절, 그러나 세 개의 거대한 진리.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시다.

이천 년 전, 목자이신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시 23:1)라는 구절만큼이나 위로가 되는 게 있다. 바로 "어린양이 나의 목자이시다"(계 7:17)라는 약속이다. 영광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이다"(마 28:20).

전도가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by Matt Smethurst, TGC

시 론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나는 자전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다. 어린 시절에 자전거타기를 배우는 것은 인생을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는 일이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넘어지는 것을 겁나 했지만 나중엔 얼마나 재미있어 했는지 모른다. 자전거타기를 배우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는,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배운다는 것이다. 넘어지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 봐야 자전거타기가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물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다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것과도 같다. 자전거를 배우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자전거를 배우면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걷거나 뛸 뿐이었던 내게 자전거를 타고 싱그러운 바람을 갈랐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둘째는, 자전거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넘어지는 상황이 되면 반사적으로 반대쪽으로 몸을 틀게 되어 있다. 누구나 자동차 사고가 날 때도 운전대를 반대쪽으로 튼다고 한다. 그런데 자전거는 반대쪽으로 틀려고 하면 진짜로 넘어진다. 하지만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진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전거타기를 가르쳐준 이의 말을 믿고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니 실제로 넘어지려던 자전거가 일어서게 되고 가려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셋째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넘어진다는 사실이다. 자전거가 서 있으려면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그래서 페달을 자꾸 밟아야 자전거가 계속 서 있다.

자전거타기는 인생과도 유사하고, 신앙생활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배운다. 내 경우 젊었을 때 큰 곤경에 빠져보았기에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들은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목회하면서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내가 진짜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찾아오는 문제를 피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살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은 정공법으로 문제를 직면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과 어렵지 않게 풀린다는 사실이었다.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라는 배짱도 좋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문제를 직시할 때 한 길로 왔던 문제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일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생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늘 전진했다. 이미 얻었다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뒤엣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달음박질하였다.

요즘 히브리서를 통해 1세기의 유대인 성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이들이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달으며 고난의 큰 싸움들도 견뎌냈다. 그런데 고난은 끝없이 이어지게 되어 지쳐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냥 유대교를 믿을 때는 핍박이나 환난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길을 잘 못 든 것은 아닌가를 회의하였다. 사람이 시험이 들 때면 모든 게 힘들게 느껴진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짐도 느낀다.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똬리를 튼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결코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며 그들을 격려하며 도전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10:35).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또한 결코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포기하지 말라. 무엇보다 목회의 길이 힘들고 고달파도 도망가지 말라. 아주 목회가 힘들었던 어느 날, 젊을 때 애송했던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송가에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했던 나를 돌아보며, 원래 목회가 이렇게 힘든 게 정상이라고 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제를 정공법으로 직시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자전거타기처럼 계속 페달을 밟으며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minkyungyob@gmail.com

목자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법

나는 중학교 1, 2 학년을 노는데 정신이 팔려 지내다가 3학년에 올라가기 직전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살면 엉망인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방학 동안 공부를 결심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학이었다. 영어나 국어 역사 등은 전과를 통해 배울 수 있었지만, 수학은 혼자 해결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2달 동안 과외 공부를 받게 되었다. 과외 선생님은 대학교 4학년생으로 아주 똑똑한 누나였다. 그 대학생 누나는 수학은 별거 없다고 말하면서 공식을 외우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필요한 공식 20여 개를 소개하며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 나의 수학 성적은 놀랍게 향상되었다. 모든 문제를 그 대학생 누나가 가르쳐준 공식대로 푸니 안 풀리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2달 만에 담임선생님을 놀라게 하며 수학 천재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자가 되어 성경을 공부하니 그 안에는 불변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속을 믿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공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용하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 공식은 그대로 통했다. 자연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공식이다. 또한 무엇인가 필요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공식이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하면 먼저 베푸는 일을 할 때 그 부족이 채워진다는 공식이 있다. 일꾼이 없으면 기도하며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식이 있다. 나는 이 불변의 공식을 32년의 목회에서 성도들에게 강조해 왔다. 그리고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에서 계속 강조했다. 바라기는 이제 이 공식을 알게 된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지에서 적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모두 천재 소리를 들으며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학 문제에서 공식을 모르면 그 어느 것도 풀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성경이 가르쳐준 불변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풀리는 것이 없다고 말하기 위함이다. 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치를 때가 생각난다. 나는 그 시험에서 수학 시험을 치를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장 쉬운 문제를 틀려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모든 시험 문제는 역시 대학생 누나가 가르쳐 준 대로 공식을 대입하여 푸니 다 풀렸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가장 쉬운 문제 같은데 그것을 풀지 못해 한 개를 틀리게 되었다. 그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원리합계를 내는 공식을 묻는 것이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였다. 그 이유는 그 공식은 대학생 누나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누나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나오는 것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쉬운 진리의 공식이라도 모르면 그리고 적용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고 불변의 공식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길을 여는 삶을 살아야 한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정관호 목사
(뉴욕만나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13-18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주님의 공생애 사역 기간 중 주후(A.D) 29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약 6개월 정도 앞 둔 시점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헐몬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약 25마일(4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명은 헤롯왕(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분봉왕으로 통치할 때,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디베료)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Caesarea Philippi(씨저리아 필립파이)가 그 명칭의 유래를 보여줍니다. 이 분봉왕 빌립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왕 곧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人子, the Son of Man)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some)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들 중의 한 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롯왕에 의해 참수당했지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와서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으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올 것이라는 엘리야로, 성경에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 예레미야의 생환(생존귀환)으로,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15-18에 나타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 선지자들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매우 빈약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Who do you say that I am?)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우리 나라 개역(개정)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면서 '주'(Lord)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원래 영어는 물론 원문에도 "당신(You)"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당신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그리스도와 동의어입니다. 메시아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등 이 모든 직분을 겸비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통치자를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겪고 있었던 로마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갖가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메시아관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메시아관(메시아사상)이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아니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바르고 참된 신앙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고백을 들은 후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this)를 알게 한 이는 (인간적인)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페트라) 위에 내(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에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

우리는 이 18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아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하여 오해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구절에 나타난 이 반석을 개인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회는 한 위대한 인물인 제1대 교황으로서의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가 〈베드로〉위에, 교황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바가 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과 질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12 제자들 전체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먼저 베드로가 받아서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고백〉을 한 것은 물론 사도 베드로 자신의 신앙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대표해서(representative로서), 대변인격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개인으로서의 베드로가 아닌, 결코 아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그를 대변인으로 하는 사도들 위에 또는 그들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20에서 교회를 일컬어서 "너희(교회)는 사도들과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셨고, 교회의 주(主),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셈이 됩니다. 이 반석이란 결국 〈사도들〉 또는 〈사도들의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들, 또는 사도들의 신앙고백과 함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교회"라고 할 때 "나"란 누구를 말합니까? "나"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 내 교회"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Lord, Owner)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Head)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는 인간,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그 누구라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또는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 또는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는 여러 조직과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제직회가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고, 남여선교회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과 기관에 총책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직과 기관과 기관장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회원들이나 대원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교인들은 그 누구라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사의 소속은 노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회 역시 교회로 볼 수 있다면, 모든 교인들은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모든 교인들, 또는 어느 교인이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교훈에 따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담임목사로 목회하던 중 목사를 극단적으로 적대하던 교인들 때문에 크게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던 선배 목사가 교회를 사임한 후에 제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갈등 때문에 목회를 접고 나왔지만, 목사는 교인 중에서 자기편이 있어야 해. 아니 자기편을 만들어야 해. 그래야 어려울 때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자기편이나 자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인(성도)은 목사의 양이기 전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약의 언약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 곧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뒤흔들 수 없으며 뒤흔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일반 교인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형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알아 그 말씀을 늘 받들어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고, 섬기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참으로 헌신적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겨나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사랑함이 넘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교회의 창설자이며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그 분 앞에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마음을 다 드려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전역에서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 보이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kwanhochung@hot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마지막 남은 찬스, 학부모가 자녀들의 정체성을 지킬 권리를 지금 꼭 지키세요!!!

초긴급!!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 오늘 게빈 뉴썸에게 1분도 안 걸리는 이멜 / 전화하시어 여러분의 자녀, 가정, 교회, 신앙을 지키세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빈 뉴썸 주지사는, 9월 22일과 23일 2틀에 걸쳐, 총 32개의 발의안을 자기 책상에서 마주하였습니다.

그중, 주지사는 총 29개의 발의안에 서명함으로 29개의 "발의안-BILLS"들을 캘리포니아의 공식 "법안-LAW"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3가지 발의안들은 거부(veto)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지사가 서명하여 정식 법안 LAW가 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친동성애, 친 트랜스, Anti-Biblical values(반성경적)인 법안들이며 앞으로 공립학교와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시민의 삶에 또 한 번 더 큰 변화를 일으킬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회가 남았습니다!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동참과 기도로 기적과 같은 일이 2가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화와 이메일이 AB 957 통과를 막았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던, 다른 때 같으면, 이미 서명을 했을 만한 발의안들(AB665, AB1078, SB596)에 게빈 뉴썸 주지사가 아직도 서명을 안 하고 "생각 중 HOLD" 입니다.

위의 3가지 발의안들은, AB957과 같은 맥락의 "학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보호할 권리"를 빼앗는 발의안들로서, 다른 때 같으면 게빈 뉴썸이 받자마자 서명하여 캘리포니아의 공식 법안이라고 공포했을 것입니다. (TVNEXT.org 에서 발의안 설명참조)

그러나, 주지사가 아직 서명하지 않고 생각 중이라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지사가 생각 중인 이 악법들이 완전히 막히도록, 오늘 중 다시 한번 쉴새 없이 전화랑 이메일이 쌓이도록 아래의 링크에 가셔서 1분도 안 걸리는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을 취해주세요!

긴급 두가지 ACTION TO TAKE:

먼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게빈 뉴뉴썸에게 이멜을 아주 쉽게 보낼수있습니다. Gavin Newsom Contact Page: https://www.gov.ca.gov/contact/

1. 전화걸어서 메시지 남기기. (30초) ** 전화걸기 불편하시면 이메일만 보내세요.** Phone: (916) 445-2841

2. 주지사 웹페이지에서 이메일 보내기(30초). 전화 & 이메일 보낼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

전화만: Hello Governor Gavin Newsom, My name is ____ and I am a resident of _____ County, CA. (or zip code) 그리고 아래 문장 읽기.

전화/이멜내용: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veto on AB957. I am calling you to please SUPPORT SB 14 and VETO the following Bills: AB665, AB1078, SB596. Thank you!

더 할 수 있는 말들, 또는 이멜에 적을 수 있는 문장들은 TVNEXT.org 에 가셔서 참조하세요. 예로 아래에 두개만 가이드라인으로 나눕니다.

1. Please stand with parents and the next generation, our kids in California.

2. Please protect our children and the parental rights. Parents aren't perfect; however, parents love their kids the most.

3. Please do not separate children from their loving and caring parents.

참고로, SB14는 성매매를 금지하라는 발의안입니다.

** TVNEXT.org 에 가시면 같은 링크를 직접 누르고 스크린샷이 있어서 쉽게 이해하고, 30초도 안 걸리는 서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뒷배경, 주지사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위의 32개 발의안이 법안이 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새크라멘토 국회의원 절차들을 여러 번 거칩니다. 절차중, 상/하의원들 안에서도, 교육, 행정, 문화 등등 여러 상/하원 Committee 들을 거치는데, 거칠 때마다 Committee 관련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발의안들이 통과 또는 거부됩니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라온 발의안들은, 마지막 절차에 놓이는 것인데요, 주지사의 권한에 따라 통과되면 정식 법안이 되거나, 거부되면,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만일, 올라와있는 발의안들(Bills)에 주시사가 서명을 하면 "Bills 발의안" 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식 "법안-Law"들이 되어서 모든 시민은 삶의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이냐(선/악)에 따라서,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는 모든 시민, 가정, 학부모, 자녀, 교육, 언론, 신앙단체들, 비즈니스, 경제, 등등 모든 삶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들이 악법이든 아니든, 서명되어 정식 "법안- LAW" 가 되면, 시민들은 그 법을 따라야 되며,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법적 조치 / 형벌 / 벌금 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런 법이 되는 과정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번에 주지사가 이틀 만에 서명한 29개의 발의안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칠 법안이 된 것입니다. 주지사가 거부(VETO)한 발의안들은 INACTIVE 된건데, 감사히도 저희가 적극 반대한 AB957이 끼어있어서 기적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려 드린바와 같이, 여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직도 AB665(Kidnapping Bill- 자녀들을 학부모로부터 정부가 빼았을수 있음), AB1078(학부모 profiling 고발), SB596(학부모에게 벌금 1000불까지와 Jail까지 보낼 수있음)이 주지사 책상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발의안들이 완전히 법안이 되면, 캘리포니아 학부모들과 신앙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주지사에게 전화 또는 이멜을 보내서, 절대로 서명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TVNEXT는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VNEXT.ORG@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성가대의 지휘자를 맡고 있는 집사입니다. 음악을 전공하여 지휘만 수십 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휘자가 갖추어야 할 영적 자격과 예배 때에 찬양대의 중요한 사명에 대해 성경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 가든그로브에서 KIM 집사가

찬양대 지휘자의 자질과 사명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휘자의 사명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섬기는 것처럼 지휘자와 찬양대원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영의 직분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이 70세이 되어 늙었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다윗 찬양대의 조직입니다. 레위인 중에 4,000여명을 찬양대원으로 선택하여 찬양대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다 풀타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장막성전의 예배는 2종류인데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는 예배였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은 짐승의 피 냄새와 타는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오직 엄숙과 정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처럼 전혀 찬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역대상 15:16절을 보면 모세의 장막에서 없는 노래와 노래하는 자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박수가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의 외침과 할렐루야 아멘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막에서는 제사장의 감정과 마음의 고백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였습니다.

다윗 찬양대의 총지휘자는 헤만으로서 선견자라는 말은 환상을 보는 자로 예언자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예언을 할 만큼 신령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5:1-2절을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며"에서 신령한 노래의 히브리어는 나비로서 노래로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찬양을 맡은 자는 음악적인 실력도 좋아야 하지만 성령충만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는 탁월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만이라는 사람 곁에는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두 사람의 부지휘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찬양대원들 4,000명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자가 288명 이었습니다. 각 파트장인 셈입니다. 이들은 찬양을 전문적으로 배워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찬양대원들은 전문성의 원리입니다. 역대상 9:33절을 보면 "레위 족속들은 골방에 거하며 주야로 자기 직무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 풀타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찬양 준비에 온전히 골몰하였습니다.

풀러에서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예배학 교수였던 슈미트 박사는 찬양대의 제일 첫번째 사명은 예배음악을 이끌고 리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 찬양이 처지지 않게 보통보다 조금 빨리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대가 예배 찬양곡을 반드시 한번 불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중 찬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찬양대원들이 다 소리를 내어서 크게 정확하게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실제 예배 시에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열심히 잘 안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찬양대원들은 각 파트별로 화음을 넣어서 부르면 더욱 좋습니다. 찬양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구역별로
한 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850)423-9700 Cell. (213)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우리는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보통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는 항상 가장 싼 비행기표를 구입했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론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부친 짐이 같이 따라오지 못했을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불편하지만 그 다음에 또 여행하게 되면 다시 가장 싼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직항편은 너무 비싸서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천국입니다"라고 답하고 싶은 충동이 일곤 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곳이 공한 체크인 카운터 입니다. 그러나 체크인 하고 비행기 기다리는 곳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느냐고 오히려 물으면서 접근하기도 하고 결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이 있으며 주님이 안 계신 영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 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최종 목적지를 준비하는 여행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사는 것은 나의 목자가 함께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아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이며 푸른 초원이나 음침한 골짜기가 영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하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나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눈팔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름길과 빠른 방식에 매료되어 있으며 모든것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음식 준비도 대형 마켓에서 구입한 것 전자렌지에 넣으면 5분 이내로 끝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신앙도 이런 인스턴트에 물들지 않았는지요?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 원하고 예수 믿으면 삶의 질이 빠르게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으면 내일엔 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로 서기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누구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고 중간 기착지도 착실하게 다녀오며 기다릴 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빠른 결과를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진행은 늦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쉬지않고 오르막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통로이자 과정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성실히 참석했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거나 완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매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고지가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너무 빨리 고지에 도달하면 교만하기 쉽고 너무 쉽게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전진하는 의미가 희석됩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더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모로코 기독인들 '지하 교회'서 나와 무슬림 이웃 섬겨

모로코 기독교인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조용히 섬기고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어려울 때 지하 교회에서 나와 무슬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는 모로코 현지 기독교인과 국제 기독교 단체가 정부나 다른 단체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찾아가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유명 관광 도시인 마라케시에서 560㎞ 떨어진 '탕헤르 노던교회' 성도이자 기독교교회연합 대표인 유세프 아흐메드는 최근 기독교교회연합 회원 36명 중 일부와 함께 평소보다 긴 가정예배를 드린 뒤 아틀라스산맥의 외딴 마을로 향했다. 진흙 벽돌집이 많이 파괴됐다는 소식에 일손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봉사단은 마을에 접근할 수 없어 마라케시의 제마 엘프나 광장으로 발길을 돌렸고 가는 길에 만난 모로코인과 관광객에게 물과 담요를 나눴다.

아흐메드는 C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만을 전했다"며 "지금은 영향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고 했다. 65개 가정교회로 구성된 모로코기독교연합회도 구호 활동에 손을 보탰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모로코의 현지 기독교인은 2만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80%가 베르베르족으로 알려졌다. 모로코 정부는 이슬람교와 유대교만을 공식 종교로 인정한다. 기독교단체 오픈도어즈는 올해 초 모로코를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국가 29위로 꼽은 바 있다.

남부 도시인 아가디르에서는 150명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지역 기독교 단체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음식과 의류, 의약품을 나누고 시립 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를 위로했다. 이 단체의 라시드 이무난 대표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영적인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라틴아메리카 기독교단체인 PMI(People in Mission International)는 이재민 지원 기금 모금을 시작함과 동시에 비상 물품을 나눌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최근 현지에 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한 PMI 현장 직원은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로코는 지난 8일 서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6.8 지진으로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5000명 이상이 다쳤다. 이번 지진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1969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로 전해진다.

구약 시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전쟁의 주 무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7일 고대 유적지인 텔예리코(Tel Jericho·아랍어 텔에스-술탄·성경명 여리고)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했다. 텔예리코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요르단강 서안 예리코시 북서쪽에 펼쳐진 유적지로 구약 시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주 무대이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성지순례객이 방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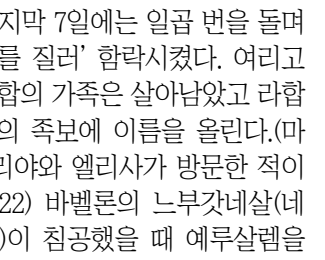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요르단 계곡에 위치한 이 유산은 선사시대 인간 활동의 퇴적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근에 '아인 에스술탄'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타원형 텔 또는 마운드(mound·더미)"라며 "오아시스의 비옥한 토양과 용이한 물의 접근으로 BC 8000~9000년 이곳에 영구 정착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중기 청동기 시대의 흔적은 대규모 가나안 도시 국가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텔예리코를 포함한 여리고는 '달(月)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城)'이란 뜻이 있다. 당대 최고(最古) 성읍(민 22:1; 26:3)이었으며 오아시스 도시였다. 지중해 수면보다 250m 낮아 해발 790m에 달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었다. 지형도 험해 강도의 출몰이 잦았다고 한다. 실제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전했다.(눅 10:30)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대상지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곳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무너뜨렸다.(수 6:1~25; 히 11:31). 당시 백성들은 치열한 전투 대신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고 마지막 7일에는 일곱 번을 돌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함락시켰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가족은 살아남았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마 1:5) 여리고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방문한 적이 있으며(왕하 2:4~22)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2세)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을 탈출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곳에서 붙잡혔다.(왕하 25:5; 렘 39:5). 또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이곳 출신자들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다.(스 2:34; 느 3:2)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시각장애인 바디매오의 눈을 치료해 주셨고(마 20:29~34), 세리장(chief tax collector)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를 불러 만나기도 하셨다.(눅 19:1~2) 기독교 전승에는 여리고가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한 후 '지극히 높은 산'(마 4:8~9, 막 1:13)에서 시험을 받은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캐나다 한국인 밀집지역서… '백인끼리 모이자' 벽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근교 도시 지역에 백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모 및 자녀 모임을 알리는 벽보가 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C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전단의 인종 차별적 내용이 범죄 혐의를 담고 있는지를 조사 중이며, 전단 제작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 전단은 지난 주말 밴쿠버 인근 코퀴틀람 시를 비롯한 3개 도시 일대에 벽보 형태로 나붙어 처음 발견됐다. 코퀴틀람은 인구 15만명이 거주하는 밴쿠버의 대표적인 다인종 도시로,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기도 하다.

전단은 인스타그램과 엑스(X:전 트위터) 등 SNS에도 등장했으며, '백인끼리' 어울리는 자녀·엄마 모임을 내세우며 참여할 것을 광고하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자녀들이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엄마들'이 모임 초대 대상이다. 또 "우리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자랑스러운 유럽인 자녀의 부모들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단은 중심가 대형 상가 주변을 포함해 도로 곳곳에 나붙었다. 해당 시 당국은 지난 주말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 수색에 나서 철거 작업을 벌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3개 시 당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신고를 받고 모든 버스 정류장을 포함해 일대를 수색했다"며 "이런 쓰레기는 우리 커뮤니티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증오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작가노조 파업 5개월 만에 잠정 합의… 배우는 아직

미국작가조합(WGA)이 5개월여 만에 파업 종료를 위한 잠정 합의를 사용자 단체와 도출했다.

미국 뉴스채널 CNN은 24일 "1만1000여명의 작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WGA가 사용자 단체인 영화·방송제작자연합(AMPTP)과 협상에서 파업 종료를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AMPTP는 OTT 플랫폼 운영사인 넷플릭스·월트디즈니를 포함한 주요 영화·방송사를 대표한다.

주요 영화·방송사들은 CNN에 "지난 23일 WGA에 최상의, 그리고 마지막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GA 협상단은 "작가를 보호하고 이익을 지킬 조치를 담은 이례적 합의안"이라고 예비 합의를 평가했다.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WGA 회원들은 지난 5월 2일부터 OTT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 가운데 작가의 몫을 할당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화·방송사의 대본 작성을 규제하도록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WGA 파업은 5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방송가에서 작가 파업은 1988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펼쳐졌다. 이 기간 중 헐리우드 영화·방송 제작은 상당수 중단됐다. 미국 비영리 경제연구 단체 밀컨연구소는 캘리포니아·뉴욕·뉴멕시코·조지아주처럼 영화산업 시설을 유치한 미국 내 주들의 손실 규모를 최소 50억 달러로 추산했다.

다만 WGA와 AMPTP 사이의 파업 종료를 위한 잠정 합의만으로는 헐리우드 파업을 완전히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임금 인상,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으로 인한 수당, AI로부터 보호를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다.

CNN은 "WGA와 AMPTP 사이의 협상이 타결돼도 16만여명의 배우를 대표하는 SAG-AFTRA의 파업이 끝날 때까지 헐리우드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파업 · 고유가 ·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美 '4대 악재' 동시 노출

인플레와 고금리 속에서도 성장세를 지속하던 미국 경제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을 계기로 한꺼번에 4가지 악재를 만나면서 지금까지의 성장 기조를 잃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UAW의 파업 확대, 국제유가 급등,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 4가지 악재를 언급하며 "하나하나씩은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겠지만, 한꺼번에 이 모든 요소가 터질 경우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Y파르테논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문과의 접촉에서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의 4중 위협"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에 대한 질문에 파업과 정부 셧다운,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장기 금리 상승, 유가 충격 등을 꼽았다.

현재 진행 중인 위기는 UAW 파업이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연설에서 파업 참여 사업장을 기존 3개 공장에서 약 20개 주에 걸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공급센터(PDC)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UAW 파업 장기화는 고용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가격을 인상해 인플레이션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매주 연이율 0.05~0.1%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도 이미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랐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여파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30% 가까이 상승했고, 최근에는 연일 90달러를 웃돌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조만간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갤런(3.78L)당 3.88달러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10.6% 급등해 2022년 6월 이후 한 달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도 큰 변수다. 무려 4380만명이 월평균 200~300달러씩을 상환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여유자금이 바닥난 저소득·중산층에겐 큰 타격이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 업무 셧다운 시계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는 공전만 거듭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달치의 임시예산안(CR)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셧다운에 돌입하면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공공 근로자가 일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최대 80만명의 소득이 사라지면서 소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도 차질이 생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열린 의회 행사에서 "식품 안전, 암 연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약속(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 간의 잠정적 합의)을 지키길 원치 않아, 미국의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7. 박호병 (1880-?)

박호병은 1880년에 한국 경상남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26세가 되던 1906년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그는 자기 이름을 Pak Ho Biong 또는 Pak Ho Byung으로 표기했다.

호놀룰루 구세군 한인 영문

1912년에 박호병은 호놀룰루에서 거주했고, 호놀룰루 구세군 한인 영문을 개척하는데 함께 했다. 그해 이규연과 전경준 등과 함께 하와이 구세군 정령인 브란취 칵스 부인을 찾았다. 칵스 부인은 영국에서 구세군 영문을 섬기던 중 단기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역한 적도 있었는데 1883년에 하와이로 전임되었다.

칵스 부인의 후원으로 1912년 10월 15일에 하와이에서 가장 큰 도시인 호놀룰루에서 한인 구세군 영문이 설립되었고, A.C. 닐슨 정위가 한인 목양 책임 사관이 되었다. 그해 12월 10일에 호놀룰루의 구꾸이 스트릿에 월세로 건물을 임대하여 한인 구세군 영문을 세웠다. 교인이 적을 때는 15명이었고, 교인이 많을 때는 40명이었다.

그해 구꾸이 스트릿에서 구세군 한인 영문을 세웠는데 빈야드 스트릿 가까이에 있는 리버 스트릿으로 구세군 한인 영문을 이동했다. 그해 12월 크리스마스이브에 호놀룰루 구세군 한인 영문이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개최하였다.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한인 소년과 소녀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는 한인 사회의 큰 행사로 치러지게 되었다.

구세군 한인 영문은 한편 한인들을 전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성령 학교를 설치하여 두 가지 사역을 추진하였다. 이 성령 학교에서 고아를 양육하였고, 어린이를 위한 국어 교육에도 힘썼다.

창립 이듬해인 1913년 10월에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절을 개최했다. 그런데 5일이라고 적혀 있어, 오타가 아니라면 설립 날짜가 15일이 아니고 그보다 열흘이 앞선 5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

29세의 이규연 사관이 1913년 7월에 16세 된 송마르타 (Martha Shong)와 결혼했다. 송마르타는 1897년 9월 7일이나 이듬해인 1898년 10월 15일에 태어났다고 한다. 송마르타는 한국에서 여학교를 나온 지식인이었으며, 사진 신부가 되어 하와이로 이동하였다. 결혼 후 송마르타는 남편의 성을 따라 이마르타 (Martha Yi)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박지설이 1915년 5월 24일에 사진 신부였던 어린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호놀룰루에서 발생했다. 판사는 잔인한 살인 혐의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음 달 27일 아침에 박지설은 발렌틴 신부에게서 가톨릭식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영세를 받았다. 죄수복 대신에 자신이 평소에 입었던 사복을 입고 교수대에 서기를 원했는데 사복을 가져다준 자렛 보안관에게 촌각을 다투는 마지막 인생길에서 박지설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였다. 가깝게 지내던 4명의 한인 친지가 그를 만나 손이나마 잡아보고 싶어했지만, 박지설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짧은 글을 적은 쪽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음 날 28일에 교수대에 들어서서 올가미를 마주했을 때 박지설이 약간의 감정을 드러냈다. 영세는 영어로 받았지만, 마지막 형장의 순간에 한국어로 기도를 받기 원했으므로 구세군 한인 영문을 담임한 박호병이 구세군 한인 영문 개척을 위해 수고한 블란취 B. 칵스 정령과 구세군 한인 목회 책임 사관인 A.C. 닐슨 정위와 함께 방문했다. 박호병은 큰 소리로 간절하게 사형수인 박지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다. 기도를 함께 한 직후 교수형에 처한 그는 의사의 검진 후 검정색으로 페인트칠한 거친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되어 마키키 공원묘지에 묻혔다. 애드버타이저가 보도한 박지설의 사건을 복사하여 1915년 6월 29일에 보도한 하와이안 가제츠에 따르면 박호병은 사형수 박지설 만큼이나 크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반 히스테리칼하게 기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조국을 떠난 한인의 이민 생활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지만, 복음만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38세의 박호병은 1916년 8월 3일에 호놀룰루에서 H.N. 팀머만 구세군 사관의 주례로 사진 신부로 보이는 20세나 적은 18세의 김숙안과 결혼했다. 이날 김연이 부부가 박호병 부부의 결혼 증인으로 섰다. 박호병은 김숙안에게서 진한, 진옥, 진문 그리고 프란시스라고도 불린 진찬을 두었다. 진한은 몇 년에 태어났고, 진옥은 1917년에 태어났으며, 진문은 1918년에 태어났고, 진찬은 1921년에 와히아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지나다가 27살이 되던 1938년에 하와이로 이주했다.

1910년대에 평양 숭실대학 대표 14명이 호놀룰루를 방문했다. 오하후 한인 사회는 그들에게 화환을 걸어주었고, 오하후 한인 사회 대표 12명은 그들과 함께 사진을 박았다. 박호병이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에 섰다. 민찬호 목사는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에 섰고, 안원규는 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섰다.

1920년 3월에 그로브팜 농장 노동 주선인으로 활동하던 김천일이 가와이섬의 리후에 카운티의 아카쿠이우에서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그달 23일에 가우와이와 리후에서 발간되던 더 가든 아일랜드에 실렸다. 그는 구세군 영문 초급 하사관으로서 교회 일에 앞장섰고 신실한 사관이었고, 매우 높게 존경받았으며,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한 컵의 찬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할 수 있었던 어떤 것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 구세군 영문 교인 만큼이나 많은 한인이 매우 섭섭해했다. 아내와 다섯 자녀를 두고 그는 홀로 황급히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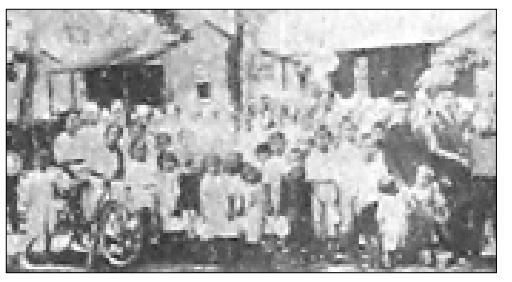
그런데 그해 8월 4일에는 가와이섬 와일루아 지방에 거주하던 구세군 교회 전도사인 박호병의 부인 김숙안이 별세하였다. 결혼 4년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당시 김숙안 부인은 22세에 불과했다. 원근 각지에 거주한 일반 부모와 형제자매 수십 명이 장례예배에 참석하여 위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한 금액을 부조하여 진실로 동족상보가 아닐 수 없었다. 박호병은 국민보를 방문하고 그곳 동포의 후의를 감사하는 글과 부조한 이들의 성명과 금액을 본보에 기재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그달 31일에 국민보는 '와일루아 동포의 사랑'이라는 제하로 그가 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천지의 변화는 일월성숙의 순환을 의지함이오. 인생 백년의 생명의 장단과 화복유무는 상주께 달렸도다. 세속의 변화를 따라 교제가 와일루아 농장으로 이거하온 후 모든 동포 제위의 인애여기하는 하해지덕을 입사와 가정이 무화다락하여 지내옵다가 천의를 의지하여 이달 초 4일에 교제의 실인이 세상을 떠나 모든 동포들께 옵서 사업을 정지하시고 장례식에 참례하사 깊은 동정을 표하신 후 겸하여 귀한 재정까지 다대히 완조하여 주셨사오니 제위의 후의치덕은 감히 나의 일신으로 다 갚지 못하겠나이다. 교제 박호병." 위의 기고문에서 박호병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감사하는 예절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위의 국민보에서 부조한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아래와 같이 읽을 수 있다. 호항 구세군 백인 사관과 사병이 62달러 50센트, 부인 제회가 10달러, 안재덕과 김관여가 각각 5달러, 이윤대와 이규현이 각각 3달러, 이재연과 김달룡과 한덕재와 염덕순과 문 윤과 김진옥이 각각 2달러, 오두령이 1달러 50센트, 박용주와 오대경과 김경선과 박재선과 노원식과 박성문과 문원서와 박문법과 김용진과 박경일과 이하주와 송공선과 김경락과 남득도와 윤희중과 박주법과 문달룡과 오대유와 김경식과 김유호와 고치운과 김순성과 공명운과 최원숙과 최종태와 김인걸과 남경애와 서축삼과 김덕찬과 전흥삼과 최재덕과 최영신과 한길수가 각각 1달러, 정만서, 정용만, 복종학 그리고 이동빈이 각각 50센트를 부조하였다. 그리고 유아를 위하여도 부조하였는데 김달영이 5달러, 요시다가 3달러, 조매륜과 홍철수가 각각 1달러를 부조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박호병이 담임하던 구세군 한인 영문 사관과 사병일 것이다.

첫째 부인 김숙안이 소천한 지 3년이 되던 1923년 4월 16일에 오아후 섬에서 박호병은 남편을 사별한 배유수와 재혼했다. 배유수는 1898년 4월 16일에 한국 경상북도 대구에서 아버지 배상진과 어머니 김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진 신부로 호놀룰루에 입항하여 입항한 지 3일이 되던 1916년 3월 15일에 12년 전에 하와이로 이주한 14살이나 많은 김청운과 호놀룰루 한인 감리교회에서 결혼하고, 오아후 섬의 와이아루아에서 거주하였다. 배유수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랄프, 바바라 등을 낳았다. 박호병 부부 가정에 1926년에 로이드라고도 불린 진명이 태어났고, 그 후 아브라함이라고도 불린 진한이 태어났다.

화환을 건 평양 숭실대학 대표와 오아후 한인사회 대표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박호병)(왼쪽에서 세 번째가 조병요)



1924년에 모인 호놀룰루 구세군 한인 영문 군영

둘째 부인 배유수

구세군 한인 영문이 1924년을 전후하여 호놀룰루의 노스베레타니아 스트리트 길 선상에 있었다. 그해 한 군영 모임에 20여 명의 성인과 1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린 후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 교인 중에는 양장을 한 분도 있으나 한국 고유의 한복을 차려입는 자들도 보인다.

1933년 5월에 박호병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아들을 만나 하와이로 이주할 것을 제안했을 것 같다. 그런데 선박 서류에 박호병이 상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즈음에 구세군 사관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나, 자비량으로 영문을 목회했을 수도 있다.

둘째 부인 배유수는 1958년 1월 31일에 호놀룰루에서 향년 59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호놀룰루에 있는 누아누 기념 공원에 안장되었다. 박호병의 마지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월-금)
Tel.(213)481-2779 / t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www.elpistamily.org Tel.(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죤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제 4장 기도의 본질–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주해와 방어 (2)

2) 우리는 자연적인 양심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내적인 부족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연적인 빛과 평범한 율법의 외적인 글자를 통해 깨달아지는 죄에 대한 의식이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부분적으로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며(롬 2:14,15),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1)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지식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워, 결코 그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로 아뢸 수 없다는 것이다. 고통이나 다른 섭리적인 사건들을 통해 각성되고 자극받은 자연적인 양심으로 인하여 자기 영혼에 파고드는 직접적이며 혹독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각성시키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어,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아뢰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그런 죄의식 아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propitiation)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추측한 신들에게로 나아간다. 그렇게 될 때 자연적인 양심에 의해 깨달아지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는 기도는 오직 '가증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2) 우리 모두는 자연적인 양심의 빛과 결정으로 깨달아지는 이런 것들이 신자들의 삶에서 얼마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3) 신자들이 간구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죄에 대한 각성이다

다윗은 자신의 원죄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시 51:1-5),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시 19:12)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시 51:6,7),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발견하도록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자신의 온 영혼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폭력과 사악함과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깨닫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면 우리의 기도의 온전한 내용이 된다. 이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의 모든 신비를 높이며 그를 통해 받은 모든 열매들과 유익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 매순간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의 영적인 조명의 은혜가 없이도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무지하거나 불경건한 사람은 거의 없다.

2. 하나님의 약속들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

그 약속들은 기도의 척도이며 기도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밀한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의 뜻과 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며 우리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 준비되어있고 제시되어 있는 선과 은혜와 친절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내용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 곧 영적인 일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 곧 그분의 약속들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친절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전 2:11,12, 고후 7:1).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받고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과 은혜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며(롬 10:14),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하는 것이다(히 9:1).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부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이 들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에 대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그들은 기도해야 할 가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자기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공되는 은혜로운 공급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채워 주시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고는 것을 이해할 때, 바로 그때에만 제대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3.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기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도의 목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스스로 잘못된 목표를 세워서 기도의 모든 유익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 4:3)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목표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잘못 구하는 것이므로 응답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결코 부합할 수 없다. 우리는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실제적인 역사가 없이 우리의 본성적이고 불안한 추측에 의존함으로서 실패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 기도의 내용이 그 자체가 아무리 탁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설정한 잘못된 목표들에 의해 가치가 떨어지거나 부패되거나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바른 목표를 설정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고객 서비스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가 지닌 구매력을 인식한 말이다. 특별히 요즈음 같이 온라인이 발달한 시대에는 어느 식당에 가야 좋을지,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좋을지를 결정할 때 소비자들의 평가가 한 몫을 한다. 그래서 Yelp 같은 곳에 특정한 식당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한 번 올라가면 그것을 지우기 위해 주인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한다. 고객이 왕이라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권리를 남용하는 진상 손님 때문에 사회가 떠들썩한 일도 가끔 대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물품 반환을 포함한 고객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나도 소소한 물건들을 샀다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 주 전에 정말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경험했다.

얼마 전 글에도 썼지만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 준 목걸이의 잠금 장치가 불량해서 목걸이를 두 번이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었다. 또 잃어버릴까 마음이 쓰여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물품을 반환하려고 했더니 담당 직원이 수리해줄 수 있으니까 맡겨 보면 어떻겠냐고 권고했다. 조금 찜찜했지만 고쳐 준다니까 한 번 맡겨 보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쳐 준 목걸이를 하고 나갔다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또 다시 없어진 것이다. 괜히 수리해보라고 했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이제 정말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이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 주신 메세지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 자체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섬세한 그 마음을 놓친 것 같아서 더 서운했다. 목걸이를 산 곳은 고객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소문난 곳이어서 쇼핑을 하러 간 길에 서비스 창구를 찾았다. 직원의 권고대로 수리를 했지만 결국은 또 잃어버렸으니 혹시라도 리펀드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였는데 귀걸이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채 새 것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걸이는 없어졌으니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를 돌려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했다. 몇 퍼센트를 돌려주면 좋겠느냐고 해서50퍼센트, 아니면 30퍼센트만 주어도 좋겠다고 했더니 수리한 곳에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사실은 별 기대를 안하고 물어본 것이었다. 며칠 후dish washer 바닥에 반짝이는 것이 있어서 보니 목걸이었다. 세 번째 다시 찾다니 참 반가웠다. 목걸이를 찾은 다음 날,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오랫동안 자기들 사업체의 좋은 멤버이어서 전액을 다 반환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너무 뜻 밖의 소식이었다. 정말 고맙다고, 그런데 목걸이를 어제 다시 찾았다고 했더니 그러면 반품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이 목걸이는 세 번이나 잃어 버렸다가 찾은 미라클 목걸이어서 저는 그냥 집에서라도 하고 다닐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손님의 상황을 고려해서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그 뛰어난 고객 서비스 정신에 마음이 흐뭇하다 못해 감격스러웠다. 아무리 물건에 결함이 있었고 수리가 잘 못 되었다고 해도 어찌 생각하면 나는 거의 하소연에 가까운 불합리한 요구를 한 것이었다. 오래된 고객이라지만 자기들의 유익보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준 것이 너무 고마웠다. 잃어버린 목걸이 값을 돌려줄 수 있느냐는 논리에 안 맞는 말 뒤에 숨어있는 내가 왜 그 목걸이를 잃어 버린 것이 서운한지, 직원의 권고를 듣고 고친 후에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의 스토리를 들어준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대로 판단하고 공식적인 규정대로 움직이는 서구적인 사고 방식에는 스토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오랜 세월을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인 사고 방식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 삶에는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나 사건을 이해할 때 스토리를 배제한 온전한 이해는 있을 수 없다. 목걸이 소동을 또 한 번 치루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왜 힘든지, 겉으로 드러난 상황 뒤에 있는 스토리는 무엇인지를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lpyun@apu.edu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웅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 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5:30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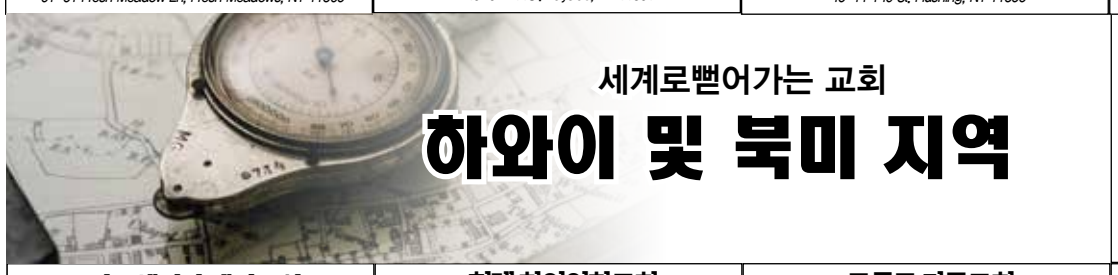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한결같음

매일 아침이 되면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들로부터 카톡을 받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면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나누고 싶으신 짤막한 묵상을 보내주십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배경 사진에 성경 한 구절을 적어서 보내주십니다. 두 분의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 후배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변함없이 보내주십니다. 어쩌다 한 두 번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몇 년 동안 매일 아침이 되면 카톡을 보내십니다. 저는 두 분의 목사님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영성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에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보내는 글, 기사,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에 가치를 두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카톡을 받은 사람이 읽든지 안읽든지, 보든지 안보든지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자신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몇 차례 카톡으로 사회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어서 보내더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글들을 열심히 보내오더니 '귀한 정보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적어서 답장해 주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카톡 보내는 일을 그만둡니다. 어떤 분은 열정을 가지고 장황하게 오늘의 묵상을 적어서 몇 달 동안 보내더니 카톡으로 '아멘' 이라던지 '은혜받았습니다'라는 응답하여 주지 않자 포기하고 더 이상 보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알리고 싶은 사실, 내용이 있어서 보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없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나누는 일이나 소통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하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을 나누는 일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는 일입니다(겔2:7; 3:11; 딤후 4:2). 사람이 자주 듣게 되다 보면 들은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경험하게 되면 믿게 되어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신앙생활의 한결같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나 나약할 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일해야 합니다. 마음이 속상할 때나 만족할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 주던지 못 알아 주던지 개의치 않고 맡은 일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삶의 여유가 있던지 허덕이며 살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꾸준하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에 확신을 가지고 한결같음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고 풍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supbois@gmail.com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주최 제22회 창작성가제 성가곡에 참석한 작곡자들과 시인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주최 제22회 창작성가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주최 제22회 창작성가제가 9월24일(주일) 오후 6시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담임 Jessica Strysko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현미 회장은 "코비드 19로 시작된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창작성가제를 현장에서 열게 되어 감사하며 특별히 케냐 선교후원 음악회로 준비하게 된 것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창작성가제의 작품들은 유순자, 김학청, 문인귀, 이효섭, 오영례, 정정숙, 어미선, 석정희, 이인미, 카라영리, 권온자 등 시인들의 시에 황현정, 이가영, 조성원, 권희원, 김지면, 노용진, 최병두, 김재숙, 이호준, 백낙금, 한지헌, 이현정 등 작곡가들의 작곡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랜드페스티벌 콰이어(지휘 강민석), OC 코리언 매스터 코랄(지휘 강미영), 한인기독합창단(지휘 제갈소망), 동부사랑의교회 할렐루야성가대(지휘 최왕성),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성가대(지휘 강민석), 테너 오정록, 하워드 조 등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이번 성가제를 위해 모금된 금액은 케냐 선교사로 사역중인 오운철 선교사와 오영례 선교사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창작성가제는 이경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2023제14차 국제총회 세계선교대회에서 선교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제14차 국제총회 세계선교대회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더 힘차게 뛰어가자"

예장 국제총회(총회장 박병섭 목사) 2023 제14차 총회 및 세계선교대회가 '중단할 수 없는 세계선교 마무리 비전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9월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기홍 목사는 "14차 세계선교대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재충전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더 힘차게 뛰어가게 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월) 오후 7시 선교사 입장식으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이승배 선교사(네팔)가 기도했으며, 김영선 선교사(터키)가 성경봉독했다. 이어 은혜장로성가단이 특별찬양했으며 총회장 박병섭 목사(샌디에고 사랑교회)가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히2: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병섭 목사는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선교의 중차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회복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우리시대의 사회문화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맡겨진 선교사명을 잘 감당해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 뒤 "첫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더욱더 예수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 이 시대는 급변해가는데 이 시대 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란다. 신앙여정의 끝까지 잘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동주 목사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됐으며 이서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둘째날 저녁 집회는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가 특별 찬양했으며 곽현섭 선교사(미얀마)와 조병훈 선교사(탄자니아)가 선교보고를,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셋째날 저녁집회는 소련선교합창단의 특별찬양과 박두희 선교사(일본)와 황광식 선교사(케냐)의 선교보고가 있었으며 한기홍 목사(GMI 총재, 은혜한인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이번선교대회는 5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가 '선교동향',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가 목회자세미나, 켄안 선교사(GMIT, 세마포호도스 선교회)가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 시대와 크리스천의 삶', 허버트 홍 선교사가 '난민선교', 손경민 목사가 찬양간증을 했다. 마지막날엔 국제총회 회무처리를 했으며 폐회예배 설교는 이동준 목사(OC아름다운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먹구름 틈새에서 희망의 빛줄기..

〈1면에서 계속〉

하지만 희망을 찾아서 교회의 사역을 보완하고 갱신하기 위한 지표로 본다면 유용하리라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의 열 가지 결과에 주목한다.

1. **젊은 기독교**: 29세 이하에서 개신교 인구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훨씬 높다. 20대의 개신교 인구는 11퍼센트로 불교(3.5%)보다는 3배, 천주교(4.5%)보다는 2배 이상이 높다. 30대에서도 개신교 인구는 14.6퍼센트인데, 이는 불교(4.7%), 천주교(4.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물론 젊은 세대에서 종교인구와 개신교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는 젊은 층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친밀한 종교이다.

2. **개종 의향 종교**: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서 향후 개종하거나 믿고 싶은 종교로 개신교가 1순위로 나타났다(32.1%). 응답 표본이 91명에 불과하고, 천주교(30.2%)나 불교(29.7%)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조사 이래 처음으로 개종 의향 1순위 종교가 된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된다.

3. **가족 종교**: 개신교는 가족 구성원들의 종교 일치도가 가장 높다. 개신교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외연 확장 없이 기존 개신교인들만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지표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가족 내 유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는 잠재성도 지닌다. 가족 사이에 종교가 다를 경우 신앙이 더욱 절실한 가족에게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신교 부모들의 자녀 신앙교육 여부가 지난 조사에 비해서 하락한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4. **종교적 귀속성**: 현재의 종교를 바꾸거나 포기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15.4퍼센트가 그러한 의향을 나타냈다. 불교인은 20.8퍼센트, 천주교는 16.2퍼센트로 그럴 의향이 있다고 했다. 개신교인이 가장 강한 종교 귀속성을 보인다. 이는 전반적인 신앙 활동에서 개신교인이 가장 높은 것과도 상응한다.

5. **신앙적 정체성**: 신앙생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개신교는 개인적인 요소보다는 종교적인 요소를 더 많이 선택한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응답은 개신교의 경우 35.9퍼센트인데, 불교는 2.7퍼센트, 천주교는 7.2퍼센트에 불과하다. 불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신교와 뿌리가 같은 천주교와도 큰 차이가 난다. 구원의 확신에서도 개신교인은 66.9퍼센트가 '있다'고 대답했지만, 천주교는 47.7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6. **가나안성도의 귀환**: 가나안성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들에게 교회 재출석 의향을 물었을 때, 그들의 42.9퍼센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신앙단계가 높고, 소그룹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욱 재출석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가나안성도를 교회와 무관하거나, 분리된 자들로 단정 짓지 말자. 그들 중 상당수는 교회가 갱신된다면 돌아올 마음이 있다!

7. **성경 공부와 봉사에 대한 관심 증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봉사활동이 22.9퍼센트, 성경공부 모임 참여가 22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성경공부 모임은 2017년보다 9.2퍼센트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2017년의 55.2퍼센트보다 대폭 감소한 27.7퍼센트로 나타났다. 향후 교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도 이전 조사보다 크게 높아졌다.

8. **가족 외의 전도**: 가족 종교화가 심화하는 가운데도, 전도를 한 개신교인들의 경우에는 전도 대상에서 가족보다 친구/선배, 이웃/친척의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친구/선후배를 전도했다는 응답(20대=50.8%, 30대=54.4%)이 높게 나왔으며, 60세 이상은 이웃(45.6%)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연령별로 어떤 대상에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전략적 포인트가 된다.

9. **신앙의 촉매로서 소그룹**: 여러 조사에서 소그룹 참여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신앙 정체성과 소속감이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온다. 교회 재출석 의향이 있는 가나안성도에서도 과거 소그룹 경험자들이 많다. 개신교는 소그룹 소속 비율에서 다른 종교보다 높다. 소그룹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신앙 공동체의 유형인 것은 분명하다.

10. **기독교 이미지 형성의 주체**: 비개신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변 교인들의 언행'(30.1%)이 가장 높게 나왔다. '목회자/교회 지도자의 언행'(25.2%), '매스컴 보도'(17.9%)가 그다음이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진 책임을 목회자나 언론에만 돌릴 것이 아니다. 목회자와 교인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 백성의 변화된 삶이 중요하다. 교회는 새로운 성품과 습관을 형성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희망을 찾기 위한 열 가지 조사 결과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한국 교회에는 위기의 경종이 훨씬 선명하게 울린다. 그러나 반복되는 부정적 진단에 익숙해지고 관성이 생긴다면 더욱 위험하다. 전략 차원에서는, 우리의 약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가능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희망을 찾아 나서는 걸음을 더욱 힘있게 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 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악인이 아닌 '의인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창 18:16-33).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의 효능을 삶으로, 공동체로 증언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필요하다.

by 김선일 교수, TGC Korea

제 16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성료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 주신 영적 지도자"

두란노 미주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갓즈패밀리교회(담임 유대호 목사)에서 진행됐다. 남가주 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통해 16기 수료생 11명이 배출됐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박세헌 목사, 국윤권 목사, 이정엽 목사, 성요셉 목사가 강사로 나와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세헌 목사가 강사로 나온 아버지의 영향력 강의는 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 파송하기 등 아버지 역할의 4대 기능에 관해 설명됐다. 국윤권 목사(미주아버지학교 지도목사)가 강사를 맡은 아버지의 남성 강의에서는 남성을 지탱하는 네 가지 요소, 남자다움을 지탱 시켜주는 네 가지 기둥 즉, 왕, 전사, 스승, 친구로서의 특성이 설명됐다. 이정엽 목사가 강사를 맡은 아버지의 영성 강의에서 가정에서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 전수권을 지닌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강조됐다.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성요셉 목사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 아버지는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 주신 영적 지도자임을 깨닫게 됐다"라며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아버지가 가정이 연합하여 하나 됨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16기 아버지 학교 사회를 맡은 이원석 목사(OC목사회 회장)는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밭을 경작하는 소임을 받았다. 이미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하시기에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살수 있도록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청사진, 설계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번 아버지 학교의 의미라 설명했다.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2003년에 1기가 개설됐으며 그동안 약 420명의 목회자가 수료했다.

〈기사제공: 목회자아버지학교〉

제16기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목회자와 가족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사진=박세헌 목사]

동부교계 게시판

무료성악교실 12기 개강

카이로스 문화, 스포츠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무료 성악교실 제12기"를 개강하며 신청을 받는다. 10월 5일 개강하여 4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30까지 진행되며 참여 인원은 선착순 10명이다. 과정은 발성법, 공명법, 호흡법 등 성악 이론을 공부하고 개인별 레슨이다. 장소: 149-65 45th ave. Flushing, NY

▲문의 및 신청: 917-593-9346

고성민 목사 취임 및 기둥교회 & 뉴욕기둥교회 형제교회 결연

고성민 목사 취임 및 기둥교회 & 뉴욕기둥교회 형제교회 결연 예배가 10월 15일(주일) 오후 5시에 뉴욕기둥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문의: 뉴욕기둥교회 718-343-1593

제2회 뉴욕 대한민국음악제

뉴욕 대한민국음악재단(이사장 김영덕)과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사업회 미주총회(총회장 김남수목사) 및 뉴욕지부(지회장:남태현장로)는 오는 10월8일(주일) 오후 7시 프라미스교회(담임:허연행목사)에서 제2회 뉴욕 대한민국음악제를 공동 개최한다.

▲문의: 뉴욕 대한민국음악재단 917-533-3456

4080 중남미 선교 훈련원 개설

스페인어 미국 현지와 스페인어권 국가를 향한 선교 훈련과 비전을 나누기 위해 4080 선교 훈련원을 개설했다. 미국이 선교지임을 공감하고 중남미 현지인들이 거하는 뉴욕 뉴저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 10월 7일-12월 9일(8주) 훈련방법: 줌 강의 및 현장실습 훈련참가비: $100 (현장 실습시 식사 포함)

▲문의 및 등록: yesonchurch@gmail.com

벧엘교회, 가을 부흥회

벧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허봉기 목사(뉴저지찬양교회 원로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시니라'라는 주제로 10월6일(금)부터 10월8일(주일)까지 가을 부흥회를 개최한다.

▲문의: 410-461-1235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교회설립 34주년 감사 메시야잔치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교회설립 34주년 감사 메시야잔치와 임직감사예배가 10월1일 (주일)에 열린다.

▲문의: 703-941-4447

퀸즈한인교회, 노창수 목사 초청 추계부흥회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추계부흥회를 "믿음의 업그레이드"라는 주제 아래 10월 13일(금) 저녁 8시, 14일(토) 저녁 7시, 15일(주일) 1,2,3부 예배에 걸쳐 개최한다.

▲문의: 퀸즈한인교회 718-672-1150

연방정부, 무료 코로나 검사 키트 배포

연방보건복지부는 각 가정에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웹사이트 Covidtests.gov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1-800-232-0233

피종진목사 10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주일) 오후 김포 강림교회(조경속목사) 010-8222-1992
2(월) 오전 세계 청소년 마약감시단 (World Drug Watchdog) 서울대회 (대회장 홍성선 목사) 010-9977-5606
3(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3(화) ~ 4(수) 전남 광주 빛고을교회 (김선주 목사) 010-3145-6682
5(목) ~ 6(금)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8(주일) 저녁 서울 꿈이있는교회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9(월) 오후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노회장 박성은 목사) 정기노회 장소 : 서울강남세곡교회 (박의서 목사)
9(월)~10(화) 서울 주찬양복음교회 (이은혜목사) 010-8215-8295
11(수) 오후,저녁 구리 성민중앙교회 (강영준목사) 010-9260-1091
13(금) 오전 대한민국 국회교회 (이수웅목사) 국회구국기도회 010-2508-3344 장소 : 여의도 켄싱턴호텔 청국청
14(토) KK Blessing
15(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1
16(월) 오전 서울 서초 Unit and Core 기도성회 주최 : Tent Makers Misson 대표회장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17(화) 오전 세계 여성지도자 정책심포니 (World Women Leaders Policy Symphony) (대표고문 장상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장소 : 서울 Press Group Center
18(수)~19(목) 포항샘물교회 (박민정 목사) 010-3739-4442
20(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목사) 010-8331-3431
22(주) 저녁 대전 주안장로교회 (전정순 목사) 010-7291-3377
23(월)~25(수) 오후,저녁 서울 삼각지선지수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010-3709-4968
26(목) 오후 남경산 기도원 (원장 김대성 목사) 주최 : 한국기독교부흥사 총연합회 대표회장 (성권상 목사)
31(화) 새벽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장소 : 서울 신라호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뉴저지교협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뉴저지교협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회장 김동권 목사, 부회장 박상돈 목사 선출

뉴저지교협은 제37회 정기총회를 9월 25일(월) 오후 7시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가졌다. 임원선거를 통해 회장에는 부회장이었던 김동권 목사(뉴저지새사람교회), 목사 부회장에는 박상돈 목사(뉴저지한무리교회), 평신도 부회장에는 관례에 따라 회계였던 박성철 장로(복된교회)를 선출했다. 목사 부회장은 등록자가 없어 현직 전 회장단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했다.

1부 예배는 사회 신철웅 목사(총무), 경배와 찬양 박지우 목사(음악분과), 대표기도 전 경업 장로(평신도 부회장), 특송 36회기 임실행위원 일동, 설교 박근재 목사(회장), 광고 하늘 목사(서기), 축도 정창수 목사(전직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근재 회장은 "참된 일꾼(디모데후서 2:3~6)"을 주제로 한 설교를 통해 신실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며 "참된 목회자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자신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부 회의는 회장 박근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회원 점명시 목사 28명, 평신도 8명 등 36명이 참가했다. 투표시에도 36명이 참가하여 지난해 총회 25명보다 더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 서기 하늘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 회장 박근재 목사의 인사보고, 총무 신철웅 목사의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제36회기의 사업은 시무예배 및 이 취임식,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부활절연합새벽예배, 호산나전도대회 등 연례사업들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36회기 특별 사업으로 성경통독 세미나, 역대 이사 및 장로 초청 송년만찬, 로고스바이블 워크샵, 호산나청소년대회, 전도집중집회, 대학진학 및 학자금 상담세미나, 선교컨퍼런스, 교협회관 모금 골프대회, 분노조절 및 우울증 예방 세미나 등도 진행됐다.

감사 김건일 장로의 감사보고 후 회계 박성철 장로의 회계보고가 진행됐다. 이사회 및 건축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사장 류정환 장로는 현재 10만1천 달러의 교협회관 건립기금이 있다고 보고했다.

37회기 회장으로 당선된 김동권 목사는 당선 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다. 부족하지만 기도와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저의 부족함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려지고, 뉴저지교회가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뉴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탁했다. 부회장으로 당선된 박상돈 목사도 "비록 짧은 임기이지만, 요즘 교회들이 어려운데 교협을 통해 어려운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감사로는 김경수 목사(뉴저지성결교회)와 류정환 장로(필그림선교교회)를 추대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목사회 성지학습여행 "오감으로 느끼고 배우는 성경의 세계"

이스라엘-요르단 성지학습, 여리고성, 엘리사의 샘, 쿰란 등 방문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2023년 이스라엘-요르단 성지학습여행을 "오감으로 느끼고 배우는 성경의 세계"라는 주제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다.

45명 참가한 성지학습여행 2~4일 차에는 엠마오와 베들레헴, 가이사랴, 갈멜산, 나사렛, 가나혼인잔치기념예배, 가이사랴, 팔복교회, 가버나움, 오병이어기적기념교회 등을 방문하고 요르단으로 입국했다. 요르단에서는 느보산, 모세의 샘, 아론의 무덤 등을 방문했다.

6~7일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여리고성, 엘리사의 샘, 쿰란, 마사다, 사해체험, 벧엘, 실로 조망, 사마리아성, 야곱의 우물, 세겜성, 요셉의 무덤 등을 돌아보았다. 8~9일은 감란산, 겟세마네기념교회, 다윗성, 실로암, 시온산, 마가다락방, 베드로 통곡교회,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성전산, 베데스다, 십자가의 길 14처소, 통곡의 벽 등을 돌아보고 귀국했다.

한편 뉴욕목사회의 성지순례는 "샬롬 바이블 미니스트리 & 관광"이 주관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 일정을 마련하고 안내를 한다. 이스라엘, 요르든, 튀르기예, 그리스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20명이상이면 교회와 단체 일정에 맞추어서 조절이 가능하다.

▲문의: 이창남 목사 646-772-5947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다민족선교대회

'열방이여 연합하라'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제 10차 다민족선교대회를 '열방이여 연합하라'라는 주제로 9월24일(주일) 오후 5시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개최했다.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조동현 장로(뉴욕교협 이사장) 사회로 시작한 제 10차 다민족선교대회는 대회사 및 기도 황기복 장로(회장), 설교 박마이클 목사(한마음침례교회), 헌금기도 송정훈 장로(홍보부회장), 헌금송 테너 이세현 전도사, 축도 이준성 목사(뉴욕교협회장)로 진행됐다.

황기복 장로는 "다민족선교대회는 장로연합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사역 중에 가장 으뜸 되는 사역임을 알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깨끗하게 마실 물이 없는 어려운 땅에 우물을 파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박마이클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소서 (마 4:17)' 제목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다"며 연합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큰 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울며 회개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될 것이다"고 설교했다.

이어 황규복 장로 사회로 시작된 다민족 찬양 축제는 엘살바도르 교회(소사 마이클 목사), 글로벌 교회 중국어 회중팀(박마이클 목사), 맨하탄선교회(이희상 장로), 뉴욕 중국 크리스천 코럴 소사이티(지휘자 패트릭영), 뉴욕실버선교회(이형근 장로),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전병삼 장로)의 다민족의 합창과 팬플룻선교회(김재관 장로)의 연주, 중국 크리스천 헤럴드 크루세이드의 워십댄스 등이 진행됐다. 다민족 찬양 축제의 마지막 곡은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모든 회원이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함으로 은혜를 나눈 뒤, 이상원 목사(롱아일랜드성결교회)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는 다민족선교대회 참가팀에게 선교후원금을 전달했다.

〈홍현숙 기자〉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 10차 다민족선교대회를 마치고 사진촬영 했다

세미나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김인중 목사 세미나 "건강한 목회자, 행복한 목회"

고린도전서 15:10 말씀 중심, 39년의 목회 경험 전달

김인중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건강한 목회자,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9월 25일(월) 오전에 뉴저지동산교회(윤명호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뉴저지목사회가 주관하고, 뉴저지교협이 협력했다. 강사 김인중 목사는 안산동산교회 원로이며 앞서 뉴저지동산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바 있다.

뉴저지목사회 회장 홍인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인중 목사는 고린도전서 15:10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인중 목사는 본인의 약 39년의 목회 경험을 전했다. 김 목사는 "행복한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윗왕이 시골 목사인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인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교인들의 이런저런 소리를 다 받아들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살리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약 7년 동안 2천명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다 외우고 목회한 일화도 소개하였다. 김 목사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며 "목회자가 교인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고 불러 기도하니, 행복한 목회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고 임동선 목사 7주기 추모예배를 마치고 개념관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

고 임동선 목사 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관 개관식

"지구촌은 나의 목장…그의 생애, 비전 본받자"

고 임동선 목사 7주기를 맞아 24일(주일) 오후 7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에서 추모예배 및 임동선 목사 기념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 앞서 남종성 교수의 사회로 드려진 추모예배는 김지훈 목사(동양선교교회 담임) 기도,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담임)설교, 손종수 학우 특송, 김대성 목사와 김해룡 집사의 추모사, 윤성환 이사장 축도로 진행됐다.

박성근 목사는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롬 1:14-17)의 제목으로 "임 목사님의 목장은 지구촌 전체였다. 우리는 그의 생애와 비전을 본받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가 개인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야 한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가면 부흥은 가능하다. 개인적, 로칼적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며 △빚진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문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자세를 제시하며 "이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부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받은 자인 우리 모두는 세상 박수를 기대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자"고 강권했다.

이날 임성진 총장은 "고 임동선 목사의 뜻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기념관을 월드미션대학교 4층에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념관 개관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으며 박소린 과장이 기념관을 안내했다.

한편 월드미션 대학교가 주최하고 동양선교교회와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21일 오후 7시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본 음악회는 본교 음악과가 중심이 되어 임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오페라틱 오라토리오로 준비된다.

〈이성자 기자〉

어컴퍼니 월드와이드 여성회복공동체 후원 감사의 밤

"예수님의 말씀 실천코자 홈리스와 싱글맘 돕고 있어"

어컴퍼니월드와이드(Accompany Worldwide, 이하 AW 대표 이경미) 여성회복 공동체 후원 감사의 밤이 23일(토) 오후 5시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경미 대표는 "지난 2016년 AW가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여성회복운동공동체인 AW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6년간 여성사역자들을 후원하고 홈리스 사역자들을 도왔다. 팬데믹 이후 14명의 싱글맘들에게 하우스렌트를 도왔으며 현재 10명을 돕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싱글맘들을 후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서린 조 전도사의 찬양과 경배 인도로 시작된 후원 감사의 밤은 서경란 목사(풀러신학교 교수)가 '환대(마 25:31-4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서경란 목사는 "환대는 나그네 혹은 이방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이며 타자를 도덕적 공동체로 초대하는 행위"라며 "성서적 환대는 환대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환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환대가 있어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환대 받은 자에서 환대하는 자로 서야한다. 그 목적으로 AW가 설립되었으며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과 연대하고 동행하기위해 설립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AW 사역으로 도움을 받은 자들과 멘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소개되었으며 이어 유분자 이사장과 제니퍼 오 한인가정상담소 부소장의 격려사와 케서린 조 전도사와 에픽 피아니스트의 특송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김도일 목사(세계등대교회) 축도로 마쳤다.

AW사역은 가정폭력이나 신분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싱글맘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6개월간 한 달에 1000불, 이후 6개월간 한 달에 500불을 1년 동안 주거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강의를 통해 AW 멤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우며 상담 심리 기초과정을 마친 AW멤버들이 재정 지원을 받는 싱글맘들과 1대1로 연결되어 이들의 정서적, 영적 회복을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210-3292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어컴퍼니 월드와이드 여성회복공동체 후원 감사의 밤에서 이경미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KFAM 한인가정상담소 40 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에서 케더린 염 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KFAM 한인가정상담소 40 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 개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나라와 공존할 수 없어"

KFAM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는 9월 21일(목) 오후 6시 '제 40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마제스틱 LA다운타운에서 '40년간의 여정' (Through the Decades) 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역사회에서 KFAM의 40년 동안의 역사와 성취를 축하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열린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자로는 배우 C.S 리로 자신이 미국에서 성장 과정 중 겪은 '인종차별 경험', 그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극복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캐서린 염 소장은 "KFAM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40년 동안 한인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한인사회와 후원자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KFAM과 50주년, 60주년을 넘어 함께 동행하기를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올해 연례 기금모금 행사는 Centerstone SBA Lending, Inc, 수잔 정 정신과 박사, 유진 김 성형외과, 한미은행, 메릴린치 인베스터, PCB 은행,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 Superior Grocers, Turbo Air가 리더십 스폰서로 후원했다.

▲ 문의: (213)235-4869, sslee@kfamla.org

〈박준호 기자〉

동부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감사행사에서 본교회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사진오른쪽 원안은 이날 사회를 본 김정오 담임목사

동부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찬양제와 감사축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돼

동부장로교회(담임 김정오 목사) 창립 50주년 감사예배가 24일(주일)에 열렸다. 이날 오후 2시에 김정오 목사 인도로 시작된 찬양예배는 한기형 목사(CBS 대표)가 기도했으며 이재영 목사(노회장)가 '여호와를 송축하라(시 103: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재영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태만한 원인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택을 잊을 때"라 지적하며 "첫째 개인적인 관점에서 베풀어주신 것은 사죄의 은택이다. 죄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사죄의 은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 사죄의 은택을 받지 않고 아름다운 찬양이 상달되지 않는다. 둘째,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서 받은 은택이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풀어주신 은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아주셨다. 동부장로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송축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기웅 목사(총무)와 조영일 목사(고은장로교회, 증경노회장)가 축사했으며 5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소개되었다. 이날 예배는 이재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열린 찬양제는 본교회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호산나 찬양대가 무대에 올라 찬양했으며 테너 황호진 집사가 독창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50주년 감사예배는 김정오 목사 인도로 시작, 차윤준 목사가 기도했으며 호산나찬양대가 찬양에 이어 김정오 목사가 '이런교회(갈 1:6-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유치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특별찬양과 노회장 이재영 목사가 권면했으며 김정오 목사가 축도했다. 또한 오후 4시에 열린 창립50주년 감사축제는 조준기 장로 사회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제5회 오렌지미션콰이어 정기연주회

오렌지미션콰이어(OMC단장 이경일)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9월17일(주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이경일 단장의 환영인사와 이재근 목사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그의 길을 따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등 성가곡을 불렀으며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강 건너 봄이 오듯', '경복궁 타령' 등 가곡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나는 비록 약하나' 등을 불렀다. 그리고 라훔 여성합창단과 소프라노 신선미 TKC앙상블 콜텟(현악 4중주)이 찬조 출연하여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으며 OMC와 라훔여성합창단이 혼성으로 '전능의 주님 인도하소서', '찬양의 심포니'를 불렀다. 이날 연주회는 구봉주 목사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5회 오렌지미션콰이어 정기연주회가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남가주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대표 대회장은 한기홍 목사)가 10월 1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10)995-3986, (323)578-7938

'2023 밀알의 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최하는 '2023년 밀알의 밤'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된다. 밀알의 밤 메인게스트는 개그맨 김영철씨이며 일정은 29일(금) 오후 7시30분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30일(토) 오후 7시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10월1일(주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이다.

▲ 문의: (562)229-0001

남가주신학대학 제8회 설교 페스티벌

제8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대상 신학교는 현재 연방정부 인가기관으로부터 인준된 12개 신학교 재학생이 참가대상이다. 방법은 영어와 한어 설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할 수 있으며 상금은 우수상 2000달러, 모범상 1700달러, 주해상 1500달러, 전달상 1300달러, 그리고 비전상, 설교발전상, 설교부흥상, 설교 은혜상 각각 600달러가 수여된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지도교수와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추천 1인, 대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별로 청중평가단 3명씩 추천하여 참석하게 된다. 미주 성시화운동 본부(공동대표 송정명,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베데스다대학교가 주관하는 금년 2023 설교 페스티벌은 1부 예배, 2부 설교 페스티벌(약 2시간 15분 예정), 3부 휴식 및 평가 발표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문의: holycityusa@yahoo.com, (213)663-2228

세계선교교회 창립50주년 선교부흥회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창립50주년 선교부흥회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29일(금)부터 10월1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 강사는 원용수 선교사(미얀마)이며 일정은 29일(금)과 30일(토) 저녁 7시, 10월1일(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이다.

▲ 문의: (213)388-1927

노래와 함께하는 짧은 추억여행

동덕동문합창단(단장 박영애, 지휘 김미선 교수)는 '노래와 함께하는 짧은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야외음악회를 30일(토) 오후 5시 예수커뮤니티교회(담임 박경일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동덕동문합창단과 정한원 기타리스트가 출연한다.

▲ 문의: (213)369-3861

이 시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성경세미나

이 시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성경세미나가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이 시대의 참 예배!'라는 주제로 10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World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2538 W Pico Blvd, LA, CA 90006)에서 열린다. 강사는 최수일 목사(WVIU 교수)이다.

▲ 문의: (213)700-1802

세계선교교회 창립50주년 감사예배에서 전교인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사진오른쪽위 타원안은 이날 창립기념케익을 자르고 있는 담임목사와 장로들 모습

세계선교교회 창립50주년 감사예배

이재국 원로장로 추대 및 이재영, 이재국 장로 은퇴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창립50주년 감사예배가 24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찬양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재영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지난 50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영상이 소개되었으며 모세선교회 특송, 케이크 커팅, 장로 은퇴식이 있었다. 은퇴식은 이재국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했으며 이재영 장로와 강석건 장로가 은퇴했다. 이재국 장로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선한양심이 모인 곳이다. 동고동락해준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33세 때 세계선교교회에 왔다. 부족하지만 따라주고 용납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세계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를 돕는 원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장로는 "지금까지 장로직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은혜에 감사드린다. 은퇴장로로 교회를 잘섬기겠다"고 말했으며 강석건 장로는 "감사할 뿐이다. 주를 향한 50년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한 것처럼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오늘 이 앞으로 50년을 계획하는 첫 날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맹호 목사(2대 담임)와 최운형 목사(6대 담임)의 축사가 영상으로 소개됐으며 허번 목사(3대 담임)가 축사했다. 이어 본교회가 1월부터 후원하는 스트릿 컴퍼니(대표 이용석 선교사) 선교보고가 있었으며 김창섭 목사가 '주와 함께 50년(삼상 7: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허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국교회, 추석 맞아 소외계층에 '예수 사랑' 전한다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군부대, 홀몸노인, 다문화·탈북민 가정 등에

올해 추석 명절은 개천절과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져 최장 6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한국교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한층 더 외로움을 느낄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놀이공원으로 초청하거나, 홀몸 노인, 다문화·한부모·탈북민 가정 등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며 예수님 사랑을 전한다.

타지 생활을 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명절이면 각자의 고국에 있는 가족 생각에 한층 더 외로움을 느낀다. 이에 서울순복음노원교회(이상용 목사)는 20개국 외국인들을 놀이공원으로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순복음노원교회 외국인선교회는 오는 29일 경기도 포천, 양주 등과 서울 인근에서 일하는 350여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제23회 외국인근로자 추석명절 사랑축제'를 진행한다.

이상용 목사는 "우리 교회 외국인선교회는 낯선 생활환경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펼쳐 힘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함께 추석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사역하는 재단법인 마중물(이무열 목사)은 같은 날 인천시 강화도 모퉁이돌선교센터에서 '추석 명절 통일 한마당 캠프'를 연다. 탈북민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국문화 배우기' '역사 배우기 및 통일 한국 비전 세우기'와 같은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무열 목사는 "작년 추석 때에도 멀리 제주, 강원, 부산 등지에서 약 80명 정도 함께 모여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이 되기 전에 미리 이들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 미리 함께 살아보는 통일 한국, 미리 경험해보고 함께 행복해하는 통일 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고 전했다.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는 부산 전역을 비롯해 김해에 있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립준비 청년 탈북민 등을 섬긴다. 교회의 '수영로 라이더' 사역에 지원한 교인들은 추석 전날인 28일 식용유·햄·참치를 담은 추석 선물 꾸러미를 취약계층 370가정에 직접 배달한다. 수영로교회에 따르면 수영로 라이더 지원자는 120여명에 달한다. 일흔을 넘긴 교인도 운전대를 잡는다고 한다. 자가용으로 직접 온기를 전하는 이들은 청년 60여명이 교회에서 손수 부친 해물파전과 동그랑땡도 함께 전한다. 수영로교회는 2020년 팬데믹 때부터 명절 선물 배달 사역을 시작했다. 대면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절을 누구보다 외롭게 보내는 이들을 교회가 품자는 취지에서다.

교회의 이번 추석 나눔을 총괄하고 있는 김도림 목사는 "사역 초창기엔 선물을 둔 채 초인종만 누르고 돌아갔는데 지난 해부턴 대면으로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며 "전하는 교인과 받는 이웃 모두가 이웃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 선교 50주년 앞두고 선교 역사관 개관

사도행전을 써온 선배들의 선교 흔적들을 역사화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필한선협·회장 고광태 선교사)가 지난 25일 선교역사관을 개관했다. 필한선협 소속 20개 선교부 단체 대표 등 50여명은 비낭오난 디사이플메이킹처치 선교센터(김태현 선교사·예장통합)에서 선교역사관 개관예배를 드리고 내년 필리핀 선교 50주년을 준비하기로 했다. 필한선협은 또 이날 제7차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이영석 선교사(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소속)를 추대했다.

필리핀은 1974년 한상휴 당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교사가 파송돼 수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인 교민 선교를 시작했다. 선교역사관은 내년 필리핀 선교 50주년을 맞아 선교사들의 흔적을 역사화하고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디딤돌 마련 차원에서 문을 열었다. 고광태(기감) 필한선협 회장은 "지난 50여년간 선교지에서 사도행전을 써온 선배들의 선교 흔적들을 역사화하고 다음세대 선교를 위해 각 선교단체와 연대해 역사관을 준비하게 됐다"며 "특별히 희년의 해를 맞이해 필리핀 선교 50년사를 발간하고자 편집 주필로서 위촉된 김태현 선교사가 선교역사관 건물을 기증해 첫 출발점을 삼게 되었다"고 말했다. 필한선협은 초대 선교역사관장에 이교성 선교사(19대 한선협 회장 역임, 예장통합)를 위촉하고 각 교단 선교단체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역사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찬선 사무총장(예장백석대신)의 사회로 시작된 역사관 개관예배에서 필한선협 4대 회장을 역임한 조성일 선교사(예장백석대신)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으로 '옛날을 기억하라'를 제목으로 설교하고 "필리핀 선교 역사가 50년을 향해 오면서 선교사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에서 필리핀만큼 선교의 거점과 지경이 넓혀지며 기독교 인구가 10%까지 부흥한 것은 한국 선교사 특유의 선교 전략에 의해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필한선협의 6기 임원단은 회장 이영석 선교사를 비롯해, 부회장 정윤관 선교사(남선협), 정재영 선교사(GMS), 사무총장 정찬선 선교사(예장백석대신), 서기 정원기 선교사(기감), 회계 신승훈 선교사(예장합신)가 선임됐고, 감사에는 조성일(예장백석대신) 안광택 선교사(예장 중앙)가 추천돼 동의를 받았다.

필한선협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마닐라 오키드가든수트호텔에서 태동화(기감 선교국 총무) 이현식(서울 진관교회) 신현구(대전 유성교회) 최재선(서울 한서교회) 목사 등을 강사로 초청해 희년 준비 콘퍼런스를 연다.

청소년 위한 '건강한 놀이터'가 열렸다

위틴즈페스티벌·채널세븐 사역팀, 다음세대 대상 기독문화축제 개최

다음세대 문화축제 단체인 위틴즈페스티벌(대표 김미라 전도사)과 문화연합선교팀 채널세븐(CH7)이 24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문화축제 '2023 위틴즈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힙합선교팀 멘토(단장 류한수)의 비보잉 무대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댄스 힙합 랩 등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경연대회가 진행됐다. 또 10대들이 직접 기획한 '캘리그래피 쓰기' '키링 만들기' 등 20여개의 놀이 부스가 마련됐다. 캘리그래피 부스를 기획한 이가민(19)양은 "긍정적인 문구를 엽서에 적어 페스티벌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심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홍윤지(39)씨는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즐기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이런 건전한 축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위틴즈페스티벌에는 NGO단체 멀시핸즈(대표 임동재)를 비롯해 한국십대선교회(대표 박은철 장로) 등 50여개의 기독단체가 함께했다.

"예장합동 총회 자살예방 특별위원회 설치 환영해"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성명문 발표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 교수)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자살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에 대한 결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25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108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예장합동)에서 자살 유족을 돕기 위한 예식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결의를 환영합니다.

예장합동 총회가 이번 108회 총회에서 '극단적 죽음을 당한 가족을 위해 적절한 예식'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교단에서 생명존중을 위한 활동을 결의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살 유족들을 돕기 위한 예식을 시행하기로 결의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자살 유족들을 위해 예식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수많은 자살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목회자 중에 고인이 자살하게 되면 장례 예식을 집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장합동 총회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인 결정으로 봅니다.

또한, 예장합동 총회가 '자살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룬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직 한국교회 교단 중에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을 한 교단은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단에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생명존중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중단하는 일은 없도록 모든 교회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만 3000여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중에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교인들을 살리고, 한국사회에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이 모든 교단으로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08회 예장합동 총회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이 동참하고 확대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발걸음을 시작한 예장합동 총회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예장통합 첫 행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25일 국회 방문, 차별금지법 제정 및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에 목소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 임원회가 새 회기 첫 사역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및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에 목소리를 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정신에 위배되는 정책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해 역차별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가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을 위협한다. 예장통합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으며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와 미군철수 반대 등도 주장했다.

국회 방문에 앞서서는 서울 마포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해 예배를 드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켄드릭 선교사 묘에 헌화했다. 김의식 총회장은 "한국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의 희생 덕에 한국교회,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며 "임원회는 이분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한 회기 사역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회장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3대손인 원일한 박사의 아내 원성희 선교사의 유해를 양화진에 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별세한 원성희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있는 남편 옆에 시신을 묻어달라고 했는데 양화진 측에서 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 분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시길 양화진 측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화진 측은 실정법상 양화진에 더 이상의 매장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NYU 의대 훼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 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의 창 (22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강과 바다를 건너야 하는 미션

모름지기 선교사는 파송 받은 나라에 뼈를 묻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서는 새 생명을 낳기 어려운 이치 아닌가? 선교사가 현지 사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본토 친척 아비 집과의 연(緣)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교사가 강과 바다를 건너 타 문화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母國)문화에 젖어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릴 때 사역은 겉돌기 쉽다.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문명의 미발달로 인하여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선교지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촌이 일일생활권으로 들어왔다. 이는 선교적 측면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낳고 있다. 지금 선교사들이 현지인과 그 나라 사역을 위해 올인(All In)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거룩한 지상과업은 적당히 시늉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처럼 미션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다.

1. 강과 바다를 건넜던 믿음의 영웅들

아브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북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고대 중동문명의 중심지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람더러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와 자손들을 우상 문화(수 24:2-3)에 물들지 않게 함이요 나아가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며, 때가 차면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사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아브람은 75세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넜다. 모세는 200만명 이상의 유대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 홍해는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생활과 인간중심의 문화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여호수아는 선임자 모세의 바통을 이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 요단강은 광야 40년의 방황과 연단을 마치고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豫表)하는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땅끝 선교를 위해 지중해를 건넜다. 그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혈통적, 문화적, 종교적, 유대의 옷을 벗고 복음의 사도로서 목숨까지 걸었었다. 이상에서 보듯 강과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히 12:1)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양(大洋)을 건넜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Hudson J. Taylor, 載德生)는 근대선교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다. 그는 중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요,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의 창시자였다. 테일러는 17세에 회심한 후 21세가 되던 때에 중국선교사로서 장도에 올랐다. 그가 탄 배는 "덤프리스"라는 작은 쌍 돛 범선이었다. 그 배는 1853-9-19일 영국의 리버플 항을 떠나 대서양-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거쳐-인도양-태평양을 항해한 후 1954-3-1일 중국 상해에 도착했다. 정확히 5달12일만 이었다. 그는 중국인들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보다 자신의 복장과 태도에 더 호기심이 있는 것을 보고 달라지기로 결단했다. 그는 변발(辮髮)을 하고 중국옷을 입으며 모든 생활을 저들과 동일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54년이 지날 즈음 중국에는 18,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중국내지 선교회에는 825명의 선교사들이 일하게 되었다. 테일러(Taylor)는 중국 땅에 묻어 두었던 아내들과 자녀들의 무덤을 다녀온 지 몇 주 후에 고요히 주님의 품에 안겼다. 1905-6-3일, 그 나이 73살이었다. 그는 어록에 "만일 내게 천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받칠 것이다."라고 했다. 테일러는 오늘도 개신교 선교역사에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 이처럼 그가 위대한 족적을 남긴 주된 비결은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중국인을 사랑했으며 그 실천을 위해 몸에 밴 서구문화를 뒤로하고 토착문화를 존중하는 본색화(本色化)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3. 지리, 문화적 강과 시대 변화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의 인류는 움직임이 적었다. 약 10,000년 동안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람이 대대로 내려온 부모형제의 터전에서 태어나 결혼하고 일하며 그 땅에 묻혀야 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선교사도 돛단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 미지의 세계로 가야만 했다. 항선 자체가 고난이며 목숨을 건 행로였다. 선교지에 도착해도 고국의 소식을 듣기 어려웠으며 어쩔 수 없이 현지 문화와 생활방식을 소화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은커녕 생존 자체도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20세기 이후 시대는 어떠한가? 금세기 100년의 인류 역사는 창조 이래 천년, 만년의 시간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 왔다. 우리는 돛단배 대신 최첨단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안에 지구촌 어디든 갈 수 있다. 현대인은 컴퓨터, 네비게이션, 스마트 폰으로 무장해 있다. 매일 실시간으로 세계의 동향을 살피며 관계자들과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선교사는 파송을 받았다 해도 현지인을 사랑하며 사역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문명의 이기(利器)를 통하여 온갖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4. 강과 바다를 건너 사역에 올인하기 위한 방안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이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서 전 교인을 동원하고 있는 남가주의 은혜한인교회 모토(MOTO)이다. 이 구호는 어찌보면 섬뜩한 면이 없지 않다.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렇다. 사실 미션이 영적전쟁이고 보면 이러한 시도는 당연한 것이 된다. 미션은 그저 설렁설렁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먼지만 일으킬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 첫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한다(빌 2:7-8). 선교사가 공부 좀 했다고 아니면 가진 것이 있다고 으스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 그런 사역자에게 현지인들이 마음 문을 열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선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한다.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히 4:12). 선교에서 말씀 없이 구제나 사회봉사 등 선행위주로 간다면 영혼들이 어떻게 중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는가? 셋째는 일사각오(一死 覺悟)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사자성어는 주기철 목사님이 1935년 12/17~19일까지 3일간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설교한 주제이다. 선교의 DNA는 강렬하지않는 한 세상 문화에 함몰되기 마련이다. 선교사가 부모 형제까지 뒤로 하고 산제물 된 자세로 나왔다면 이 정신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밀고 나가야 한다.

맺음 말

미션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강과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 의미는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무거운 짐이나 죄의 요소를 강물에 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십자가 아래서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현지인을 사랑하며 자기희생을 각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위해서는 태생적인 인간 연줄과 자국 문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든 의식구조와 삶의 방식을 현지인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선교사가 사역에 집중하기보다 자국인들끼리 어울리며 크고 작은 선교대회에 참석하느라 바쁘다면 그 미션은 보나 마나이다. 이러한 형태는 선교사가 아직 문화적 강과 바다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인 선교는 냉철히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말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Jrsong007@hanmail.net

미션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강과 바다를 건너야 한다.
강 건넘이란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인간은 상대방을 사랑한 만큼 그 문화도 존중하며 자기희생을 담보한다.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11)

루이스의 어머니 플로렌스 아우구스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누구에게나 부모가 중요하지만 C. S. 루이스에게 부모는 매우 중요하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루이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어머니를 잃었다. 그는 일평생 어머니 사랑을 갈망했던 것 같다. 그의 아버지는 자녀사랑에 매우 서툴렀다. 어머니는 루이스의 평생 마음에 품었던 갈망 혹은 동경(젠주흐트/Sehnsucht)의 한 부분이다.

C. S. 루이스의 어머니 플로렌스 아우구스타 해밀턴(Florence(Flora) Augusta Hamilton)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앵글로 노르만 가문 출신이었다. 플로렌스 아우구스타 집안은 12세기 이후 대 농장을 소유한 농장주로 농업에 종사했다. 농업에 종사하던 그녀의 조상들은 신실한 신앙인들이었고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앙인 가문이었다.

그래서 플로렌스 아우구스타는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코크 카운티의 퀸스타운에서 태어났고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토머스 해밀턴은 이미 목회자였다. 1870년 그녀가 8살 때에 그녀의 아버지 토머스 해밀턴 목사가 로마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1874년까지 로마에서 머물렀다. 1874년 아일랜드로 돌아온 그는 벨파스트(Belfast) 동부 벨리 해커모어 구역에 있던 던델라 교회의 임시 교구 목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1879년 세인트 마크 교회 교구 목사가 되었다고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전한다.

루이스의 어머니 플로렌스 아우구스타 해밀턴의 집안에는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플로렌스 아우구스타의 개인 신앙에 대해서는 알 길이 묘연하다. 데빈 브라운은 〈C. S.루이스의 생애〉에서 루이스가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묘사하는 데 어머니의 신앙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전한다.

루이스의 어머니 플로렌스 아우구스타는 자기 아버지 토머스 해밀턴이 목회했던 영국 성공회 소속 성 마가 교회(St. Mark's Church)에서 성장했다. 결혼 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 교회에 출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둘째 아들 C. S. 루이스의 유아세례를 아버지 토머스 해밀턴 목사에게 받게 했다.

훗날 루이스의 생애를 다룬 전기작가들이 성 마가 교회 세례자 명부에서 1898년 11월 29일에 출생한 루이스가 1899년 1월 29일에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플로렌스 아우그스타 루이스는 아버지를 목회자로 존경했었던 것 같다.

플로렌스 아우그스타 해밀턴은 당시 벨파스트에서 상당한 엘리트 여성이었다. 당시 여자들은 웬만해서는 대학에 가지 못하던 때에 벨파스트에 있는 퀸스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흔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한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 성적이 아주 탁월했는데, 논리학에서는 최우등이었고, 수학에서는 2등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C. S. 루이스의 아버지 알버트 루이스(Albert Lewis)는 성 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의 딸인 플로렌스 아우구스타에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다. 성공적인 행정 변호사였던 알버트 루이스는 사랑에 적극적이었다. 앨버트의 적극적인 표현에 플로렌스 아우구스타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버트 루이스에게 끌렸던 것 같다. 이들은 1894년에 결혼했고 1895년에 첫아들 워런(Warren)을 낳았고 3년 후 둘째인 C. S. 루이스를 낳았다.

알버트 루이스와 플로렌스 아우구스타 루이스는 자녀 교육에 진심이었다.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들은 리틀리(Little Lea) 새집을 책으로 가득한 집으로 만들었고 두 아들에게 영국식 교육(British education)으로 두 아들의 장래를 준비시키기를 원했다. 이것은 두 아들을 큰 도시 좋은 학교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알버트 루이스의 성공적인 변호사 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린 덕분이지만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플로렌스 아우구스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 집안이 벨파스트의 새집 리틀리로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워런 루이스(Warren Lewis)는 기숙학교로 나갔다. C. S. 루이스는 집에서 어머니로부터는 불어와 라틴어를, 여교사 애니 하프로부터 다른 과목을 배웠다.

단란하고 행복했던 루이스 집안의 평화는 루이스 어머니 플로렌스 루이스의 암 진단으로 깨졌다. 그때가 C. S. 루이스가 막 아홉 살이 되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루이스의 어머니는 서서히 죽어 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루이스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C. S. 루이스는 그때의 충격을 "예기치 못한 기쁨(Surprised by Joy)"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나에게서 모든 평화와 안정감을 빼앗아 갔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C. S. 루이스는 엄마 외에도 사랑받으며 자랐다. 새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살았던 던델라 빌라 생활을 회고하며 루이스는 두 가지 복을 언급한다. 하나는 가족들의 건강을 돌봐 주었던 간호사 리찌 엔디콧(Lizzie Endicott)이었고, 또 하나는 형 워런(Warren)이라고 한다. 루이스가 어린 시절의 복을 회고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 대신 간호사와 형을 언급한 것은 이채롭다.

어린 시절 어머니 죽음은 루이스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후 어린 루이스는 어머니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망했다. 어머니 죽음을 보면서 루이스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머니 죽음이 그의 무신론 여행의 출발점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루이스는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잃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C. S.루이스 자신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의 아버지 엘버트 루이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버지는 그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아버지 앨버트는 아내를 잃으면서 아들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 아버지의 기능을 잃었다. 결국, 루이스는 어머니 죽음으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나의 마음이 악한 생각의 보금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마 12:43-45) 찬 420장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곳이다. 이러한 성전에 악한 영이 보낸 악한 생각들이, 사망의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도록 두면 절대로 안 된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된다. 항상 주님을 모시도록 하여야 한다. 주님을 외면하고 사망의 생각이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성전 문지기인 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인 줄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물을 매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이 없다면 죽은 성전이다.

화 주님이 뿌리신 씨앗은 농사가 잘 되고 있는가? (마 13:1-8) 찬 425장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에는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두는 곳이다. 씨앗에 관한 지식을 밭에 뿌리는 것이 아니다. 생명 자체를 심는 것이다. 영생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생명이 심어진 사람이다. 지식은 아니다. 오늘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씨앗이요 가짜 씨앗이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심으신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생명에서 생명의 생각이 솟아난다. 이 생각을 내가 믿고 누리고 살면 그 생명은 나에게서 나타난다.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열매다. 죄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을 품고 누리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난다. 이름은 하나님의 밭인데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상적이지 못하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밭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수장절에 주인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밭이어야 한다.

수 나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사는가. (마 13:41-43) 찬 93장

우리는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떠난다. 그리고 영원히 살 곳으로 가서 산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늙음이 오고 있음은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두 가지 신분 중에 하나로 떠난다. 죄인으로 떠나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떠난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것이다. 죄인은 죄에 따라 그 형벌이 정하여지고 그 형벌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같이 하심으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산다. 두 가지 신분 중에 나는 어느 신분인가 확실하여야 한다. 영원한 소망이 있는가?

목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나의 것이 되었는가? (마 13:44) 찬 516장

보화는 나의 소중한 것을 해결하여 주는 가치가 있다. 그러한 가치가 없다면 내게 보화가 아니다. 나에게 보화로서 인정 받으려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죄들이 가득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보호 인도 구하여 주어야 한다. 약한 나를 떠나지 않고 같이 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나를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복이 내게 진정한 보화가 된다.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즐거움이? 내 가족이? 건강이? 이러한 것은 해결하여 줄 수 없다. 오직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을 책임지는 유일한 복이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그 보화가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는 다니지만 이러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로 있을 수 있다. 참으로 보화를 소유한 자는 천국에 소망을 품고 산다.

금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 13:54-58) 찬 453장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오늘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까지 받아 섬기기도 하므로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을 사실 모른다고 하는 증거가 그의 삶에서 나타난다. 살아 있는 꽃은 가까이 가면 향기가 있다. 조화를 가까이하면 향기가 없다. 가짜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에게 조심하려고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도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대하는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이 자신에게는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토 죽을 때 모습보다 살아 있을 때 삶의 모습이 더욱 귀하다. (마 14:8-12) 찬 542장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 뜻으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여인이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다. 한 여인의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목을 배임 받아 소반에 담아지는 모습이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때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의 이해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 이해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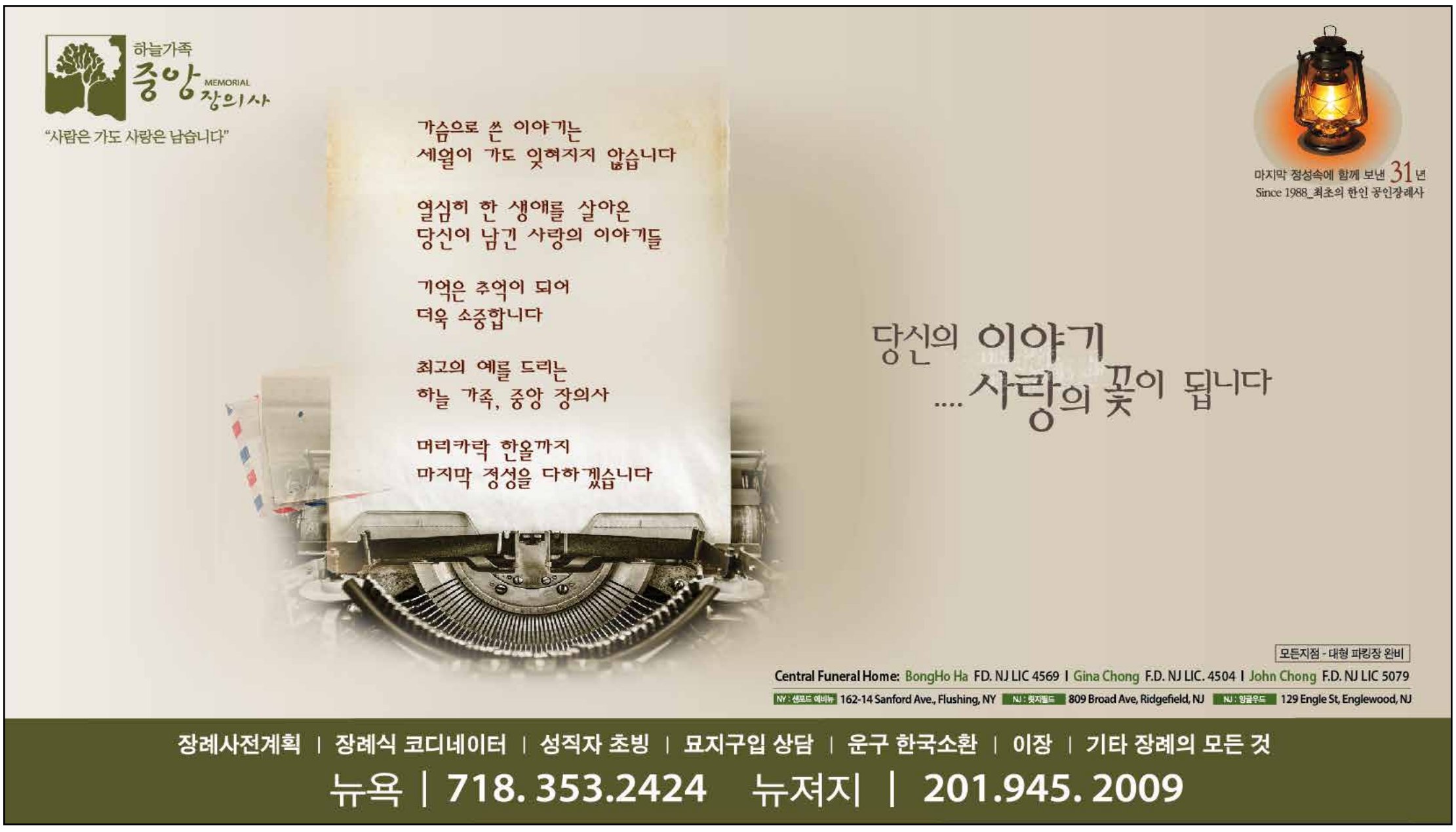
기독교교육 (35)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자원봉사자(2)

교회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잠재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임무를 맡기고,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관찰, 설문조사, 사역박람회 등등의 방법으로 봉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봉사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봉사자 모집을 지휘하고 감독할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사역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역을 알리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광고, 포스터, 안내지 등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모집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접촉을 통해 예비봉사자의 관심과 기술을 파악하고 그에게 적합한 사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면담 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사역담당자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훈련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 힘들지만 유용한 과정입니다. 사역이 발전하려면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봉사자의 수가 늘어야 합니다. 봉사자들이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봉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여러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봉사자들이 성경, 교회사, 교리, 전도와 선교, 교육법, 리더십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 사이에 토론과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봉사자들이 교회 전체의 프로그램을 파악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훈련의 종류에는 사전(pre-service)훈련과 병행(in-service)훈련이 있습니다. 사전훈련은 예비봉사자들을 위한 훈련으로서, 봉사자 후보들을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제자훈련, 선교교육, 교회음악, 청지기사역 등 구체적인 사역을 소개하는 훈련입니다. 사전훈련을 통해 봉사자 후보들은 특정한 사역의 취지와 활동에 관해 배우고, 그 사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훈련은 특정한 사역에 봉사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특정한 사역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코치나 멘토가 되어 새로운 봉사자들을 훈련할 수도 있고, 새로운 봉사자들로 하여금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봉사자를 일정 기간 관찰하며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병행훈련은 사역에 동참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병행훈련을 할 때는 새로운 봉사자가 오래 사역한 봉사자와 함께 활동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능한 봉사자와 곁에서 사역하는 새로운 봉사자는 사역 중에 생겨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봉사자는 주별 또는 월별 모임을 통해 사역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컨설턴트를 가끔 초청하여 새로운 봉사자의 사역을 관찰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조언을 제시하게 하는 것도 가치있는 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훈련을 위해 교회 밖에 있는 기회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례적인 교단 총회가 봉사자 훈련에 유용합니다. 봉사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통해 사역을 위한 도전과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전시실을 둘러보며 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 자료,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이 교단이나 지방회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복음주의 훈련협회(ETA)라는 기관은 1930년부터 개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해 왔습니다. 교회사역, 교회회원권, 성경공부 등의 자격증 과정을 통해 성경, 신학, 사역, 전도, 리더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학교 연장과정(Seminary Extension)은 게이트웨이, 뉴올리언즈, 미드웨스턴, 사우스웨스턴, 사우스이스턴, 그리고 서든 신학교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개교회의 클래스나 통신과정을 통해 신학 및 사역 훈련을 제공합니다. 신학대학원이나 신학대학으로부터 학식과 지혜를 겸비한 교수들을 초청하여 봉사자 훈련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교육 관련 출판사들은 교회사역에 관련된 자료를 발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훈련이나 세미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여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큰 보람과 기쁨을 낳습니다. 더 많은 사역자가 일하기를 바라는 교회라면 봉사자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봉사자 모집과 훈련의 지속적인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회 전체가 동참해야 합니다.

jonk@dbu.edu



선교 편지

아르헨티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곳 아르헨티나도 메마르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는 것을 보면서 봄이 다가옴을 느껴봅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 1차 예비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밀레이 후보가 31%의 표를 얻음으로써 선두 1위에 올라서자 전국적으로 시위와 폭력과 약탈로 인하여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뛰고 환율이 폭증하고, 사회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각 슈퍼마켓에서 대량 약탈 사건이 발생함으로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차 대통령선거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0월 말까지 물가 인상을 억제함으로 민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대형 마켓과 식품점에 약탈 사건들이 발생하여 물건 등 훔쳐 달아나는 영상들이 끊임없이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실

아르헨티나는 연 110%가 넘는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 국민의 40%가 극빈자이며, 전체 아동의 60%가 극빈 아동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올 10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매일 물가 인상이 달러 환율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인 MASSA가 IMF를 방문하여 외채를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대통령선거 이후에 11월에 보자고 한답니다. 불안정한 현실 앞에서 IMF도 더는 지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급한 불을 끄고자 위안화 (중국 화폐)를 미국 달러로 대체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어서 아르헨티나 미래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건강검진과 심장내과 진료와 아가페 교회 건축 재정 모금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종 재해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곡교회 (진영화 목사님) 일산 새중앙교회 (강성봉 목사님), 방산산돌교회 (안성심 목사님), 한국 기아대책본부, 송촌교회(백석현 목사님), 홍종천목사님과 이정숙 사모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이 건축헌금을 지원해 주셔서 아가페 교회 건축 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 건축 현장 (콘크리트 타설과 작업하는 인부들의 모습)

아가페 개척교회 현황

에세이사 지역에 개척한 아가페 교회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어린이 학교와 주일 예배와 소모임을 통해 복음 전파와 교육과 양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가페 교회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2층 기둥과 계단, 2층 지붕 콘크리트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8월 13일에 1차 대통령 예비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결과 극우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이 우승함으로써 정국은 더욱 불안함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2개의 정당에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밀레이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하자 물가가 30% 이상, 환율이 30% 이상 뛰므로서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상점이 물건을 팔지 않고 상황을 주시함으로써 물건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상점 약탈 사건들이 일어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2층 기둥과 지붕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담벼락, 교회 벽, 전기, 수리 내부 공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DP 아동 개발 사역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비레이 델피노 지역에 아동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 장소인 비레이 델피노 지역의 교회들과 350명 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의 내용은 학용품, 의약품, 가방, 교복, 식품, 장학금, 급식, 교과서 지원 등 영성 지원, 상담,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코 흘리던 아동들이 이제는 청소년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고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학생들, 이제는 아기 엄마가 된 청소년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면서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노라면 대견할 뿐입니다. 저들이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CDP 어린이 날 행사

한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의 어린이날은 5월 5일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매년 8월 3째주 일요일입니다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 행사를 위해서 비레이 델 피노 지역의 센터에서 Centro Cristiano 교회에서 8월 12일에 어린이 행사를 가졌으며, 새롭게 개척하여 교회를 건축중인 아가페 교회에서는 8월 19일에 행사를 갖고 아동들과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각종 게임과 오락과 다양한 행사를 갖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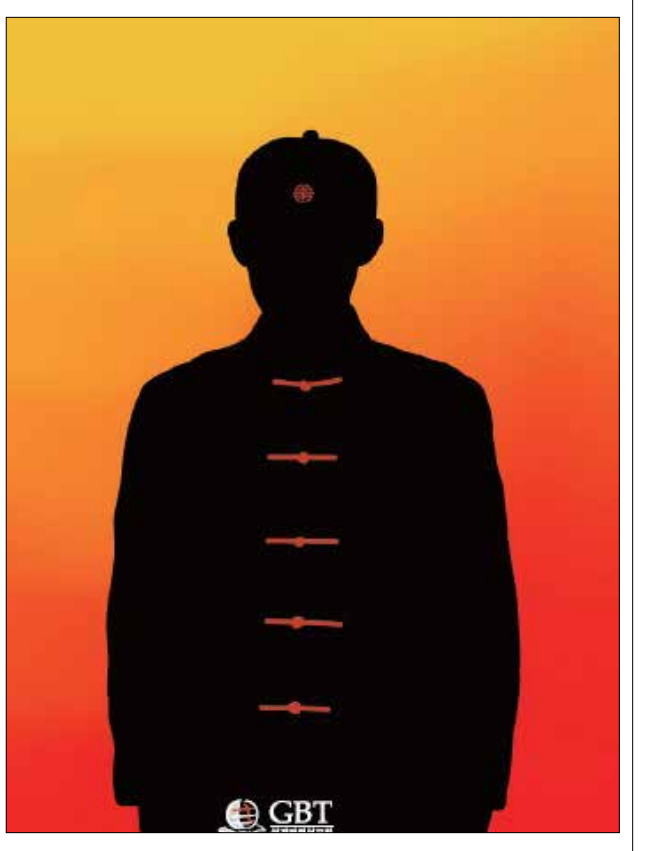
항상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 제목

1. 아가페 교회 건축과 봉헌을 위해서 (재정, 자재, 안전)
2. 아가페 개척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3. CDP 아동 사역을 통해서 많은 아동의 전도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4. 함께 수고하는 스탭과 교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5. 선교사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드리며 아르헨티나 장영호 선교사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쟈오먀오종족

▲ 인구
5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89.8%, 무교 5%, 복음화율 5.2%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여성들이 머리에 큰 나무 뿔을 착용하는 풍습 때문에 뿔먀오 종족이라고 부른다. 공식적으로 먀오 종족으로 분류되지만 뚜렷한 민족 언어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몽종족이라 부른다. 주변 몽종족의 정령 숭배와 다신론 관습을 따른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복음 전파가 어려워 알려진 신자나 교회가 없다.

▲ 기도제목
1.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쟈오먀오어 성경 번역이 속히 시작되도록
2. 쟈오먀오 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시작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제 49회 정기총회 소집 공고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49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 **장소: 하크네시야교회(전광성 목사)**

공지사항

1. 총대 교협 정관(헌법) 제 2장 4조 1항과 제8장 19조 2항에 의거 본 총회는 회원교회 목사대표 1인, 평신도 대표 1인, 증경회장과 본회 이사장만이 총대가 될 수 있다. (단, 목회자 사모나 전도사는 평신도 대표가 될 수 없다.)

2. 의결권(투표권) 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사전에 등록을 마친 총대만이 총회에서 투표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1) 기간: 2023년 10월 2일(월) - 2023년 10월 17일(화)
(2) 사전등록방법: ① Home Page: www.nyckcg.org
② 전화 (718) 279-1414 Message남길 경우: 교회이름, 담임목사이름, 총대이름
③ 사무실방문 접수
(3) 총회 회의장에서 출석 확인을 하고, 투표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교회 대표 총대(목사대표와 평신도 대표)는 최근 3년의 회비 (48회기, 49회기, 50회기)를 납부하여야 투표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120/년) 회비는 사전등록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Home Page를 통해 On Line(본인 Credit Card만 가능) 이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직접 교협사무실에 납부한다.(교회체크만 가능)
3) 금번,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 받게 될 신입회원교회는 정관에 따라 투표권과 의결권이 없다. (총대의 사전등록은 부가합니다.)
4) 불법 선거운동과 유언비어를 포함한 모든 부정한 행위는 선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총대의 권리도 박탈될 수 있다.

◈ **위임장:** 교회담임목사가 부재 중일 때 그 교회의 부교역자가 참석 할 수 있다.
① 교회담임목사로부터 위임장을 가져와야 한다.
② 위임장은 교회의 Letter Head가 포함되던지 혹은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정회원교회는 교회주소록에 있는 교회로 한 한다.

제 50회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 접수 공고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50회기를 이끌어 나갈 회장과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 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주후 2023년 10월 2일(월) - 6일(금) 오후 5:00 까지**
- **등록장소: 뉴욕교협 사무실 Tel: (718)279-1414**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제 11조(자격)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2.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4.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5.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6.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 한다.
7.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8.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2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9. 평신도 부회장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10.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11.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제 12조(등록서류) 입후보자는 등록서류들을 본 회 사무국에 문의하여 접수해야 한다.

제 13조(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제 14조(선거운동)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정견발표, 공고 및 홍보행위와 선관위가 정한 규정으로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할 수 있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회장 이준성 목사
총무 유승례 목사
서기 김홍배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만호 목사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Tel: (718) 279-1414
E-mail: nyckcg@gmail.com
www.nyckcg.org

그들의 마지막 설교에서 배우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식 설교는 서기 33년 3월 31일 화요일 또는 그즈음에 있었다. 마태복음 23:1-39에 나오는 설교 내용은 위선, 특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교만한 설교자에 대한 경고이다. 4월 3일 금요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역사상 가장 비범한 겸손함을 보여주며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처형당했다. 그의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호흡 사이에는 딱 사흘이라는 간격이 있었다. 모든 목사는 마지막 설교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우리 대부분은 무슨 설교를 할지 알 수 없다. 다음은 역사에서 만나는 몇 번의 사례이다.

존 칼빈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개혁을 이끈 칼빈은 성경 48권을 주석했다. J. I. 패커는 기독교강요를 "문학계의 불가사의"라고 불렀다. 이 모든 집필 과정에서도 칼빈은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빡빡한 설교 일정을 유지했다. 주일에 두 번, 주중에 여러 번 설교했는데, 평균 "두 주마다 총 열 번의 새로운 설교"를 했다. 1564년 2월 6일, 칼빈이 의자에 앉은 채로 교회로 옮겨졌을 때, 모든 사람은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테오도르 베자는 칼빈이 "천식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했다고 썼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이 위대한 개혁자는 마지막 설교를 선포했다. 나는 그날 칼빈이 설교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 단, 그는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서 주석을 완성했다. 그 서론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재능 있는 지도자들을 일으키셨다가 없애시기도 한다고 썼다. 그리고 "그러나 그분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항상 준비하신다. … 그의 강력한 능력은 결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보기시에 좋은 적절한 후계자를 때에따라 그때그때 맞춰서 찾아내신다"라고 덧붙였다. 며칠 후 1564년 5월 27일에 칼빈은 54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리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무덤에 묻혔다.

존 플라벨

칼빈의 사역은 대부분의 미국 목회자라면 결코 견디지 못했을 환경에서 무려 41년 동안 설교한 존 플라벨에게 영향을 미쳤다. 옥스퍼드에서 교육받고, 성경 강해와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로 유명했으나 찰스 2세 치하에서 국가의 정책에 반대했던 그는 교회에서 파문당했고, 5마일 이내 교회 접근이 금지되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든, 다른 사람의 집에서든, 밤늦은 숲에서든 여러 해 동안 불법 설교를 했다. 1691년 6월 21일, 엑서터를 방문한 플라벨은 고린도전서 10:12을 설교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닷새 후에 그는 64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죽었다.

조나단 에드워즈

플라벨은 "모든 미국 신학자 중 가장 뛰어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에드워즈가 살아있는 동안 설교집 17권이 출판되었지만, 그 이후로 더 많은 설교집이 나왔다. 그의 모든 작품은 현재 예일대학교출판부에서 출판한 26권에 담겨있다.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인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로도 유명하다.

1758년 1월 15일 매사추세츠 스톡브리지에서 행한 고별 설교는 예일 컬렉션에 포함된 그의 마지막 설교이다. 본문은 누가복음 21:36이었다. 현존하는 내용이 희미하기는 하지만, 율법과 복음을 제시하는 에드워즈 특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회중에게 모든 사람이 심판 때에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두려운 일이 많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장차 올 그 두려움을 피할 방법"이 있다고 권고했다. 천연두 접종에 실패한 그는 1758년 3월 22일 54세의 나이로 프린스턴에서 죽었다.

조지 휫필드

역사가 마크 놀은 영국 태생의 조지 휫필드를 "조지 워싱턴 이전까지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인"으로 평가한다. 설교를 들으려고 온 군중을 수용할 건물이 없었던 당시에 그는 종종 옥외에서 설교해야만 했다. 평생

그는 18,000회 이상의 설교를 했고, 두 대륙에 걸쳐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무려 천만 명을 넘었다. 1770년 9월 29일, 뉴햄프셔 엑서터에서 휫필드는 무려 6,000명의 청중을 향해서 두 시간 동안 노천 설교를 했다. 그 설교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외쳤다. "공로로! 공로로! 사람이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 차라리 모래로 만든 줄을 타고 달에 오르라고 하십시오." 그날 밤 피로에 절어서 잠자리에 든 55세의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찰스 스펄전

역사상 설교가 가장 널리 읽힌 설교자인 스펄전은 다른 어떤 목회자보다도 설교가 많이 인용되었다. 2,500만 단어로 이뤄진 그의 설교가 지금 63권의 인쇄본으로 제공된다. 이 런던 목사의 삶은 고통, 반대, 육체의 고통으로 점철됐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통풍을 "바이스에 발을 넣고 최대한 조이는 아픔"으로 묘사했다. 그러함에도 그는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설교했다. 1891년 6월 7일, 병든 스펄젼은 사무엘상 30:21-26을 본문으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선포했다. 그가 평생의 고통을 통해 배운 것으로부터 교인들은 많은 유익을 얻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낙담한 자들, 두려움이 많은 자, 마음이 연약한 자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영적 투쟁에서 항상 패배하는 자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녀에게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1892년 1월 31일, 프랑스 남부의 따뜻한 곳에서 회복 중이던 스펄전은 57세의 나이에 통풍과 신부전으로 죽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대부분의 런던 교회가 쇠퇴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로이드 존스의 지도력 아래에서 성장을 구가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이래, 그의 사역은 그곳에서 30년 동안 계속되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있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는 강해 설교를 고집했으며, 이를 "타오르는 논리"라고 정의했다. 로이드 존스는 영국 전역에서 설교하면서 마지막 나날을 보냈다. 1980년 5월 18일, 그는 웨일스의 애버리스트위스에서 시편 2편을 설교했다. 암으로 약해진 몸을 이끌고서 그는 1980년 6월 8일 영국 바콤에서 여호수아 4:6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했다. 7월 26일에 그는 이안 머레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설교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매우 힘들 거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아뇨, 설교 못 해서 힘든 거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설교에 의지해서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1981년 3월 1일, 81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들의 마지막 설교에서 배우는 네 가지 교훈

1. 모든 목사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

어쩌면 그건 최고의 설교도 또 훌륭한 설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설교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디모데후서 2:15에 드러난 두 가지 특징은 기본이다. 바로 성품과 능력이다. 성품과 관련하여 설교자는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을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설교자라면 디모데전서 3장의 기준에 따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능력에 있어서, 설교자는 말씀을 올바로 다뤄야 한다. 힘들더라도 주석 작업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능숙하게 설명하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2. 모든 목사는 불완전한 성화 상태로 마지막 설교를 할 것이다.

맹점이 가져다주는 결함에서 자유로운 목회자는 없다. 그리고 그건 여기에서 논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숨결 사이 어느 시점에서 칼빈은 "나는 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수없이 실패했다"라고 고백했다. 이런 고백은 결승선을 앞에 둔 목회자 대부분이 하는 말이기도 하다.

3. 모든 목회자는 마지막 설교를 좋은 설교로 만들 수 있다.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유명 목회자를 보면서 세상은 즐거워하고 조롱한다. 난파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마지막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은 없다. 언제가 마지막 설교일지 모르는 우리는 모든 설교를 좋은 설교로 만들어야만 한다. 좋은 설교를 할 수 없다면, 아예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

4. 모든 목회자는 섭리가 가져다주는 역경이 필요하다.

많은 교인을 끌어모으는 목회자도 있다. 스펄전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은밀한 곳에서 충실하게 수고한다. 그리고 채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잊힐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정죄하는 교만을 키우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성공이라는 유혹이 언제라도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과 성공을 같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고후 1:9).

겸손하게 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움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설교를 준비시키신다.

by Steve Bateman, TGC

베드로 진서 8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우리 가정은 연초에는 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다. 1월은 신년 예배니 각 기관 하례식으로 바쁘고 2월은 아내의 생일이 있고 3월에는 큰딸과 아들의 생일이 있고 4월에는 결혼기념일이 있는데 금년의 결혼기념일은 50주년이기에 더욱 뜻깊은 해가 되어 딸의 주선으로 연방 수상과 주 수상에게서 축하 글도 왔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내 생일도 있기에 내가 출석하는 두란노 교회에서는 꼭 생일을 기억하고 케이크와 선물도 주면서 함께 생일 축하송을 불러주었다. 얼마나 고마운지. 벌써 76세라니.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총회 헌법은 목사 안수의 연령을 27세로 규정하였기에 나는 강도사 고시를 치고 1년을 기다렸다 안수를 받았다. 교회 내의 짓궂은 권사님들이 나를 보고 애기 목사, 새끼 목사, 병아리 목사라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은퇴한 지금 누가 나를 보고 새끼 목사라 하겠는가? 그때 그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젠 늙었다고 다른 말들로 놀리시려고 하겠지.

이 글을 쓰는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기에 일어날 수 있었고 컴퓨터의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지 않는가. 거저 감사할 뿐이다. 하루를 살 수 있게 다시 심장을 뛰게 해주시니. 아내와 나는 100세 시대라지만 욕심내지 말고 맑은 정신에 건강하게 그리고 큰 믿음과 함께 90세까지만 살자고 했는데 과연 결과는....

revpeterk@hotmail.com

교회 창립 42 주년 기념
장로 · 권사 · 안수집사
임직 예배

하나님께서 영생장로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33분의 임직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장로장립 박형선 김한보 장인순 이세학 경기욱 장인하
오세진 허만혁 조남수
권사취임 이현주 이수경 서상예 장기백 김순영 이미영
이선우 윤옥정 김금숙 문봉애 나선희 고수지
집사안수 이철수 장건희 안형철 백훈석 구자선 배현수
권민진 홍정길 김유장 채영중 이인선 김재윤

일시 :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제 1 예배실

교회 창립 42 주년 감사
선교사 재파송 및 제3대 목사 위임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담임목사님은 재파송 받고 다시 선교지로 향하시고
제3대 담임목사님 위임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 재파송 백운영 목사
담임목사 위임 정승환 목사

일시 : 2023년 11월 19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제 1 예배실

말씀충만·기도충만·성령충만·사랑충만
영생장로교회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필라델피아 노회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http://www.yspc.org | 215-542-0288